

書 馳報 詔書 還軍 臣 南方 王化 絕遠
 서를 치보하오니 맛당히 죠셔를 기드려 환군하려니와 신은 씨하되 남방이 왕화절원
 風俗 強悍 德化 撫摩 威力 抑制 蠻王 哪吒
 하고 풍속이 강한 하야 덕화로 무마하고 위력으로 억제치 못할지라 만왕나락이 비록
 死罪 犯 心服 哪吒 南方 鎮定 者
 스 죄를 범하얏스오 나 임의 심복하얏습고 또 혼나락이 아난 즉 남방을 진정할 재업슬
 伏願 陛下 哪吒 罪 赦 王號 因存 聖德 感動
 가하느니 복원페하느나 락의 죄를 사하시고 왕호를 인존하샤야 공성덕을 감동하
 反覆
 야일이 반복함이 업게 하쇼셔

諸葛武侯

張子房

련지표를드르시고대희하시왕윤량각로와제신을보시며왕창곡의장략은제갈무후
 에양두치아닐지니엇지국가의동량주석파어모가성이아니리오하시고동초들갓가
 이나오라하시왈너는본디어느싸사람이뇨동최왈쇼신은소주사람으로원슈의장지
 짜힘을알고조원출전하니다상이좌우를보시며칭찬하시고우문왈네군중에서경
 력하든말과양원슈의용병하든바를대강말하라신대동최일일주달하니련지대경
 하시와양원슈의장지잇슴을임의집작하얏스나홍호탈은엇더할장쉬며무예도락이
 이못치절류하니이논원슈의복이로다동최왈홍은탈은본디중국사람으로남방에류
 락하야산중에술업을다가년금십륙세라의괴를도화하고용모풍채는장조방과방불
 하시이다상이지삼칭찬하시더니맛춤교지왕의상쇠니르니그상소에왈
 交趾之南千餘里 紅桃國
 自古中國朝貢
 교지지남천여리박괴홍도국이라하느나라이잇스니조고로중국에조공아니하고

遠方蠻夷之國 攢斥 邊方
원방만이지국으로빈척하야변방을침노함이업더니이제만인백여부락을처결하
交趾地方 侵犯 臣 土兵 調發 三戰三敗 氣勢 盛
야교지디방을침범하기신이도병을도발하야삼전삼패하니그기세가장성하야디
덕지못할지라복원폐하는던병을도발하야평딩게하쇼셔 伏願陛下 天兵 調發 平定

언지남필에대경하샤량각로를보시며문계하신대황각되주왕적세이곳치난촉하니
 용장으로더덕지못할가하오니양창곡에게조하샤군스일반을논화홍흔탈을주어
 홍도국을치게하쇼셔창곡은임의성공하얏슴에대군을올래변방에두류함이불가하
 오니썰니회군케하쇼셔윤각되왈홍흔탈의위인을드름에변방에략척하야란시를당
 하야지조를나타내야립신양명코저하는장쉬라폐해만일조하샤초용하신즉그도
 보함이티만치아닐가하노이다상이그말을조치샤즉시양창곡에게조하싣실시동초
 로호분장군을빅하야성야회정케하시니라이때양원의의의승전환국함을주쇼고
 디하더니동최서간을드리고망망회정하거늘원외나와서간을퍼볼식그중적게봉흔
 현지잇고피못에윤쇼셔삼즈를씻거늘원외즉시쇼져침실로보내니쇼제밤비세혀볼
 애엇지홍량의글시를모르리오스연에왈

賤妾 江南紅 奇薄 命道 偏愛 恩德
 천첩 강남홍은 귀박헌명도로 편이헌신은 덕을 남스와 강중의 놀난 혼이 산중에 의탁
 命道 辛苦 道童 變服 將帥 幻形 百年
 하야 명도신고하나 하늘이 무르쳐사도 동으로 변복하고 장수로 환형하야 백년의 산

어진인연을삼군장전에장막으로니엿스니천중을척망할배아니로대백일에환형
 하야귀물과긋흔지라참괴참괴로소이다다만은근이싱각고몽미에앙모하던세
 간의죽은놈이물외에싱존하야몹은얼골과놓흔말숨을다시외서여성을보낼지니
 스스로깃부오이다

윤쇼제평성던도흙이엿더니의외홍랑의편지를보고급히련옥을불너선후도착하야
 왈홍랑아련옥이살았고나련옥이당황부답하니쇼제쇼왕내말이도착하도다련옥아
 네고쥬홍랑이제간에싱존하야편지왔스니엇지괴룩지아니리오옥이반김이극진흙
 애도로혀대경실석하야쇼제씩다라들며우러왈쇼제그무슴말이니잇가하거늘쇼제
 그정경을불상이녀여위로왈스싱이유명하고고락이지련이라홍의얼골이화길하야
 필경쥬중원은이되지아닐가하얏더니과연살앗다하고서잔을내여주니련옥이보
 고여취여몽하며일희일비하야일변루슈를씩리며일변우음을씩여왈천비고쥬를본
 지삼년이라엇지면밤비보오리잇가쇼제왈상공이미구에회군하신즉조연씩라오리
 라옥이쇼왕상공환초하시느날천비남교십리에창두를조차고쥬를영후코져하오나
 다만협중에고흔의상이업서군스가붓그러워엇지하오리잇가윤쇼제쇼왕편지를봄
 애몹이장쉬되다하니이느종적을금츨이라아즉루설치말라하더라익일런지다시하
 교왕짐이곳쳐싱각하니적세비경하거늘일기편장으로가치게흙이불가흔지라다시

창곡에게조셔하야병력하게하리라하시고즉시양원슈에게조셔를느리시니그조셔

에왈

경은주지방소송지한위라덕망이조정에나타나고위엄이변방에진동함애준니
 만형이망풍와히하니종금이후로짐이고침무우홀가하얏더니교지홍도국급되나
 르러적세비경하니경은회군치말고교지로향하야도적을마져평정하고도라오라
 짐이덕화부족하야경으로하야곰우설양류에독헌하느슈괴령히풍진에장모하느
 심스를도으니남으로비라봄애참괴함이극하도다이제경을특별이우승상겸정남
 대도독을비하노니부원슈홍흔탈을다리고편의종스하야짐의뜻을저버리지말라
 만왕나탁은죄를사하노니왕호를인존하야남방을진정케하라

또홍흔탈에게조셔하시니그조셔에는엇지하신고하회를보라

데십구회

로랑이의를감동하야황부를욕하고
 가인이단거로강쥬를향하다
 각설런지천필로홍흔탈에게조셔하시니그조셔에왈

老娘感義辱黃婦
 佳人單車向江州

朕德不足 實位處 于今四年 人材 遺珠 歎息
 草野 抱玉 絕世 聲聞 朝廷
 高 초야를들매 포옥하는 눈물이 만흐니 경호는 절세한 지조를 유락하야 성문이 조영
 未達 蹤跡 蠻鄉 沉滯 朕 宗社多福
 에 미달하고 종적이 만향에 침체하니 이는 짐의 허물이라 하늘이 도으시고 종새 다 복
 渭濱 周邦 寒溪 漢中 將軍
 하야 위반의 락시를 거더 주방을 붓들고 한계의 칼을 집혀 한중으로 도라오니 장군의
 德 蒼天 朕 良弼 大功 丹書鐵券 勳
 덕이로다 창던이 집을 도라보사 랑필을 주심이라 임의 대공을 일움은 단서 열권에 훈
 業 青史竹帛 紅桃國盜賊 邊境
 업을 의론하고 청소 죽벽에 일흠이 빛나려니와 이제 홍도국도 적이다 시변경을 침노
 形勢猖獗 卿 平定 卿 特別 兵部侍郎兼征南副元
 하야 형세 창렬하니 경이 아니면 평정치 못할지라 경을 특별이 병부시랑 겸 정남부원
 帥 拜 大都督楊昌曲 大軍 交趾 大功 戰
 슈를 비하노니 대도독 양창곡과 대군을 거느려 교지에 나가 대공을 다시 일우라 전
 袍一令 弓矢節鉞 副元帥印信 卿 其欽哉
 포일령과 궁시절월과 부원슈인신을 보내니 경기 흠지하라

던지 즉시던스 일인을 명하사 조서를 가지고 성야 등정하라 하시니 던서 하직하고 남으
 로 가니라 차설 선랑이 출풍호흔과 상과 추월호흔 지절로 불의 지변을 당하야 더러온 일
 흥과 잔악호흔 죄목을 신설 무디하고 호소 무쳐 함애 죄인으로 저쳐하고 말자 최방문밖게
 나지 아니하니 호흔의 반년이라 밤이면 고등을 향하야 처량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문호를 닫고 적막히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여익이 미진하고 조물이 무심하야 일장풍

패새로 내려나니 숨흐다 그 신수의 공참함이 여차시위씨 모네 잔득한 계교로 두번 선랑
 을 모해하다가 뜻과 못지 못함애 황쇼제인호여 병들다 핏게하고 본부에 잇서 주쇼일념
 이 초조 착급하더니 양원슈의 회군함을 듣고 위씨 쇼저를 디하야 왈 이는 쇼흔 쇼석이 아
 니라 녀는 장차 엿지코저하느뇨 악호흔 건이 함득한 지 오래니 원쉬환가호흔 그 보복
 함이어느디 경에 밋츠리 오쇼제아미를 속이코 답지아니하느뇨 출월이 쇼왈 봄이 진호
 죽가을이 도라고 그릇이 마득호흔 즉기 우리 업쳐 짐은 썩썩호흔 일이라 부인이 처음 계교
 를 서어이 하시고 무익호흔 심너를 허비치마르쇼서 위씨 탄왈 출월아 너는 쇼저의 심복이
 라 엿지스싱 환란에 녀의 말하듯하느뇨 쇼저는 던성이 인악하야 원레 업스니 네 엿지묘
 계를 말하지아니하느뇨 출월왈 속담에 하얏스되 풀을 버림애 썩리를 빠히라하니 부인
 이 종시 화근을 못어두고 방략을 무르시니 천비 엿지하리 오위씨이에 출월의 손을 잡아
 왈 이는 정허나의 근심하느배라 이제 엿지면 썩리를 빠히리 오출월왈 금일 풍패오허려
 결말이 업슴은 선랑을 세상에 살녀두엇스니 초패왕을 죽인 후팔년 풍진이 침식할지니
 부인이 만일 업중조의 빚금을 앓기지아니하신 즉 천비 맞당히 장안을 편답하야 섭정의
 늘낸 칼을 도모할가하느이다 쇼제 초언을 듣고 침음왈 이일이 마장장대하느니 불가함이
 두가지라 심엄호흔 지상부에 조의를 보냄이 십분 소홀하니 그 불가함이 하나히 오내 선랑
 을 모해함은 불과 그 고음을 식고하곤 좋은 투기함이라이 제 조의를 보내여 머리를 취
 함이 형적이라 자하느니 뜻을 일우나 보고듯는 자의 이목을 엿지도 망하리 오이는 불가함

寒山 泰山

老娘

이두가지지니너는다른게교를성각하랴출월이팅쇼와쇼제덕갓치갑실진대엇지별
 당에남조를드러보내시며독약을구하야무죄한사름을음해하시니잇고천비드름에
 선랑이죄인조쳐하야풀자리와되니불에초쾌한안식과가련한조티로원슈의환가하
 심을글지고되한다하니비록대장부의털셔잔장이나오미불망하야신정이미흡하든
 총희로하야곰그경상이됨을보신즉엇지초장이바아지고살덤이얹음을면하리오죽
 연한곳에인정이싱기며쳐랑하가온디스랑하느니음음이더하느니숨흐다쇼제의신세
 는일로조차소반가온디구으느니구슬이될가하느니다황쇼제홀연얼골이푸르러지며
 막막히출월을보거늘출월이다시탄왈선랑은진기당돌흔녀지니이다근일하느니말이
 황씨아모리지혜만하나근원업는물이라동히변하고래산이문히질지언명양원슈와
 벽성선의정근은금석호리라한다하디다쇼제이에불연대로와천기를세잔에두
 고는내출하리이제상에잇지아니리라고즉시벽금을내야출월을주며와발비히게
 하라하니출월이변복하고장안을편답하야조식을구하디니일일은일기로랑을다리
 고와부인씩뵈거늘위씨그로랑을보니신장이불과오척이오벽발이귀밧을덥혔스며
 별조흔눈에팅렬흔괴운이어리엿거늘부인이죄우를물니치고종용문왈로랑의나히
 몇치며성명이무엇인고로랑왈천하나은철십이오성명은괴존하야쓸디업슬지라평
 생에의괴를도화하야불쾌한일을드르즉급난지풍을스모하디니이제출랑의말을드
 른즉부인과쇼제의쳐디십분죽연하고로흔번진력하야불평한심스를풀고져함이나

살인보슈는중대하니일호협잡함이잇는죽도로허그화를바느니부인은다시성각하
 야하쇼셔위부인이탄왈로랑은의괴잇는재로다엇지잡념을두어인명을살해하리오
 인하야쥬찬을가져디접하며소회를대강말하야와부녀의투괴는인가의만흔일이라
 그어미된재맛당히웃고만류하며썩지저경계할지니엇지도로허보슈할성각을두리
 오마는오늘일은가위천고소위오인가의뜻지못하던배라내설이본디혼암하야세잔
 의투괴가무어신줄모르고자랴더니간인의슈중에드러흔번죽독흔후로벽입골슈할
 썩아니라다시구가에감을겁하야로신슬하에평성을밧고져하니내엇지참아더물골
 을보리오또싱각건대양가흥맛은죽느니의평성이달남이라요물이싱긴후가중의변
 이텨출하고더러온말이귀로드름길이업서느니의신세는닐으지말고양가일문이패
 망지환을면치못할지라로랑이임의의괴를도화할진대삼척상망을흔번더져양씨일
 문의위티함을구하고녀의평성의화근을업시흔죽로신이맛당히천금으로그공을갑
 흐리라로랑이일변눈을흘녀위씨의괴식을숨히며쇼와진기그려흔죽또흔길이셀배
 업느이다임의출랑에게드른바니수일후맛당히칼을가지고오리이다위씨대희하야
 몬져벽금으로정표코져흔대로랑이밧지아니하야왈이느밧부지아니하니성공흔후
 주쇼셔하디라수일후로랑이적은칼을몸에지니고몬져황부에니르러죽시승하야
 양부로갈시출월이양부담밧게니르러후원길과별당문을즈세이르러치고오니라츠
 시는삼월중술이라던괴청랑하고월석이조요흔디로랑이칼을잡고담을넘어죄우를

陽臺 楚襄王 屈三閭

雲霄 望帝

曾子 孝起

돌너보니 후원이 유슈한디 파목이 성림하야 형화논이 진하고 도화논만 말흔종쌍쌍빅
학은림중에 잠들고 총총석디에익기 쌀넛스니 희미흔길이 월하에 보이는지라 자최를
그만히하야 석디를느려서 매동서의 별당이 좌우에 버려논디 일각종문이 적막히 닷쳐
거닐듯 별당을보리고서 별당에니르러 칼을잡고 몸을소사 단장을넘어드니 좌우형각
이잇는지라 춘월의지도움을싱각하고 회각대일방압히니르러보니 침문이고요이닷
쳤고그넙히적은창이잇서 추영이은영하거늘 창틈으로그만히엿보니 양기차환은촉
하에잠들고일위미인이상상에누엇거늘저세보니 풀자리에엎뒹뒹은의상과파리흔얼
골이십분초체하고철분아릿다와몽롱흔춘슈는추파를감앗스며무궁흔근심은아미
를썩고엿스니 양디운우에 초양왕을쌔쌔이아니라강남방초에굴삼녀의수심을썩엿
거늘로랑이의아하야실중에싱각하되철십년로안이세사를열력하야인정물티를흔
번보면짐작할지니엇지더러하가인이그러흔형실이잇스리오다시창틈을썩코돌너
보더니그미인이홀연탄식하고도라누으며옥곳흔팔을내여니마우에언고다시잠들
거늘로랑이별곳흔눈을땀땀히흘녀찬찬이숨혀봄에해여진라삼소매만거드치고
빙설곳흔팔독이절반이나드러났는디일편홍덤이축하에완연하니운쇼선학이니마
를늘어내고망데원혼이붉은피를도흔듯심상흔홍덤이아니라인혈일시분명하니로
랑이간담이서늘하고모음이떨니여칼을들고싱각하되아미의투괴흔과천비의망극
흠은조고로잇는배나증조의살인흔과효괴의불효흔은로신의불패하논배라평상에

梁園 袁中郎

洛陽 屠門

의괴를도화하다가이러흔사람을구치아니흔즉록록흔녀지로다하고바로칼을늘고
침문을열고드러서니그미인이놀나니러나며차환을부르거늘로랑이웃고칼을더지
며와랑조는경동치마르쇼셔양원의조각이엇지원중랑을구치아니흔줄아는니잇가
미인이문왈로랑은엇더흔사람이뇨로랑왈로신은이에황각로부중에서보낸조각이
로소이다미인와랑이임의급난지풍으로왔슨죽엇지내머리를취하야가지아니하
뇨로랑왈로신의소회는찬찬이드르시고랑조의쳐디를잠잔말하쇼셔미인이쇼와로
랑이그사람을죽이라오며엇지그곡절을못는뇨첩은던디간강상을범흔죄인이타무
슴다른말이잇스리오로랑이허희탄식와랑조의소회를그만드른죽알지니로신은본
디락양사람이라 젊어청루에놀아검술을비화더니늙음애문전이링락하고풍정이적
은지라데일감개지심이늙아도문에탁신하야살인보슈함을일삼더니그릇황가로구
의말을듯고거의무죄흔가인을상할변하얏도다미인이반겨와첩도락양청루에노든
사람이라명되괴박하야강주에표박하엿다가이곳에니르니로류창화의천흔자최로
쇼선건줄의직척을당치못하야쥬모썩되하니의호의괴잇는사람의검두고흔이될
지라로랑이용셔함이그르다로랑이다시대경와련죽랑조의일흔이벽성선이아니
오니잇가미인와로랑이엇지첩의일흔을아는뇨로랑이선랑의손을잡고할루와로신
이랑조의방명을우뢰곳치듯고랑조의빙설곳흔지조를거울곳치빗치니황가투뵈하
늘을니고귀신을속여요쇼슈녀들이곳치모해하니로신슈중의서리곳흔칼날이무디

지아닌지라 요악호로 구간녀의 피를 못쳐검신을 위로하리라 하고 분연이나 가거늘 선
랑이 그 소매를 잡아왈로랑이 그르도다 처첩지분은 군신과 못흐니 엇지 그 신하를 위하
야 남군을 해하리오 이는 의잇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로랑이 만일 고집호첩의 목의 더
러운 피를로랑의 칼에 못치리라 언필에 괴석이 당당하야 추상렬일 못거늘로랑이 다시
탄식왈랑조는 가위명 불허득이로다 내 십년일검을 황부에서 험치 못하니 심중에 그 장
불평하나랑조의 낫을 아니보지 못할지라랑조는 천만보 중하쇼셔하고 칼을 들고 표연
이나가거늘 선랑이 지삼당 부왕로랑이 만일 첩의 주모를 해친즉 그 날은 첩의 명진지시
나그리알라로랑이 미쇼왕로신이 엇지 두말을 하리오 하더라로랑이 칼을 잡고 다시 장
원을 넘어 황부에 나르니 이때 임의 동방이 북엇더라 춘월로쥬조민이 안젓다가로랑의
몸을 보고 춘월이 내다라왈 엇지 그리더디며 천기의 머리어디잇는뇨로랑이 희희이웃
고좌슈로 춘월의 머리채를 풀쳐든듯히 잡고 우슈의 서리 못흔칼을 드러 위부인을 그르
치며로안을 흘기여이유히 보더니 크케썩지저왈 잔악호로 귀편협호투부를 도아슈녀
가인을 모해하니 내 슈종의 삼척비쉴네 머리를 취하고저하엿더니 선랑의 지극한 충심
을 감동하야 용서하거니와 선랑의 지조절개는 비일이 조림하고 창던이 알으신배라 십
년청루에 일편홍념은 천고소위라네 선랑을 다시 모해호즉 내 비록 천만 리 밖게잇서도
이 칼은 잇스리라 하고 언필에 춘월을 쓰을고 문외에 나가니 황부상해대경요란하야 수
십명창뒤일제 이내 다라로랑을 잡고저하니로랑이 도라보며왈네 만일 내게 범호즉이

너즈를 못저찌리라하거니와 위감히하슈치 못하더라로랑이 춘월을 쓰을고 대도상에
나가크게 웨여왈 천하의 괴잇는 자는로신의 말을 저세이드르라로신은 저직이라 황
각로부인 위씨 잔악호를 위하야 시비 춘월을 변복하야로신을 천금으로 구하야양승
상쇼실 선랑의 머리를 베쳐오라하거늘로신이 양부에가 선랑 침실의 창틈으로 엿보니
선랑이 풀자리와 죄니 불에 남루호의 상으로 축하에 누엇는디우연이 본즉 비상홍념이
지금서지완연하니로신이 평성의 괴를 도화하다가 잔인의 말을 그릇듯고 슈녀가인을
살해호번하거니 엇지 모골이 송연치아니하리오로신이 그 칼로써 위씨모녀를 죽여선랑
의 화근을 덜가하엿더니 선랑이 지성으로 말녀말이 강개하고 의리 숨엄하니 숨흐다 십
년청루에 일혈이 분명호너즈를 음행하다하며 원슈를 낫고 처첩지분을 지희는 정대호
부인을 도로혀 잔인이라하거니 엇지 한심치아니하리오로신이 선랑의 충심을 감동하야
위씨모녀를 용서하고그저가거니와 만일이 후에 다시 귀업는 저직이 위씨의 천금을 담
하야 선랑을 해치고저하거늘 재잇스면 내 맛당히듯고 봄이잇스리라하고이에 칼을 들어
춘월을 그르쳐왈너는 천인이라 말호배아니나또호오 장류부를 가진채니 비일지하에
선랑조처현숙호가인을 엇지 참아 모해하거다너를이칼로업시코저하엿더니 다시 성
각함에 일후황씨의 형홍절초를 증거호곳이 업슬가하야 일루잔명을 못쳐두고가노니
그리알라하고서리 못흔칼날이 호번번득이며 춘월은 싸에업더지고로랑은 잔곳이 업
거늘모다대경하야 춘월을보니 류혈이랑자하고 두귀와코이 업더라조초로로랑의 풍

성이 도하에 자자야 선량의 이 덕함과 황씨의 잔독함을 모르는 재업더라 차설 황부창
뒤 춘월을 업어 부중으로 드러가니 이때 위씨와 쇼제로랑의 괴세를 보고 심분송구하든
초춘월의 모양을 보고 더욱 대경차악하야 밤비악을 주어 구호하더라 위씨 만히 칭
작할런디 신명이 돕지 아니 심인가 사람의 경륜이 지혜롭지 못하야 내 부른 조식이 도로
혀나를 해치고 슈인을 위할 줄 알았스리 오더욱 절동하바는 세 번 계교에 한번도 뜻 못
못하고 녀의 위하야 안중등을 빼쳐 주고 하다가 도로혀 불미호지목을 얻어 드르니
어미 된 모습이었지 붓그럽지 아니하리 오내 결단코 선량을 세간에 업시 치못하죽 출하
리 우리 모네 죽어 합연이 모르리라 하고 다시 일계를 생각하고 짐짓 춘월을 조침칠실에
누이고 각로의 드러움을 기드려 위씨와 쇼제실심하고 안젓거늘 각되 드러와 괴식을 보
고 문왈 부인이 무슨 불평한일이잇는뇨 위씨왈 상공은 진실로 귀먹고 눈이 두은가 장이
로 소이다 일실지니에야 잔풍파를 모르시니 잇가 각되 대경왈 무슨 풍파 노랴 말하
라 부인이 손을 들어 춘월을 그려쳐왈 더것을 보쇼서 각되 어두은 눈을 황황이 뜨고 조세
이보니 일기녀 저 유혈이 만면하고 두 귀와 괴업스니 참혹한 모양을 바로 볼수 업는지라
각되 더욱 놀나왈 그것이 누구뇨 좌위왈 시비 춘월이니이다 각되 대경실식하고 곡절을
무른대 위씨 추연왈 세간에 무서운바는 잔악한 사람들이라 부질업시 벽성선과 협원을 미
저그화를 조취하니 아득한 경륜과 흥참한 거죄이에 밋칠 줄 알았스리 오출하리 처음 독
약을 마시고 종용이 죽으니 만 못하하하하이다 각되왈 이는엇지한 말인고 위씨왈 거야

삼경에 일기 조식이 첩의 모녀자느 침실에 드러와다가 춘월에게 쫓겨 잔배라도 허첩
의 모녀는 성명을 보전하얏스나 시비는 더못치상하얏스니 고금런디의 듯지 못하피 변
이라 첩이 실로 송구하하하이다 각되 경왈이엇지 선량의 보낸배출아나나 잇가 위씨
왈 첩이또한엇지알니요 춘치조명하야 그조식이 도라가는길에 웨여왈 나느 황씨를 구
하러온 조식으로 선량을 죽이라 양부에 갖다가 선량의 무죄함을 알고 도로혀 황씨모녀
를 해코져와노라하니이엇지 천기의 요악한 계교아나리오 제이제 조식을 보내여 쫓을
일운죽첩의 모녀를 업시하고 불행히 일우지 못하죽흥녕호지목으로 써도로혀 첩의 모
녀에게 미루고져함이아니오나잇가 각되이 말을 듣고 대로하야 일변법부에 괴별하야
조식을 괴찰하고 답전에 주달하야 선량을 쳐치고저하니 위씨 말녀왈 전일상공이 선량
의 일에 황상씩 주달하야 모침리엄치를 엿지 못함은 무래라그말슴이 공번되지 못하야
조명이 모다스식잇슴을 의심함이라이제 재중하심으로 구구소회를 루루알달함이 불
가할듯하오니 잔관왕제창은 첩의이절이라 종용이 불너스기를 일일이 말함하신즉이
는 법강소관이 오폭화손상한일이라 일장표를 올녀괴강을 바로함이또한 잔관의 직책
일가하하이다 각되올히녀여 죽시제창을 청하야 의론하니 제창은 본디 중무소주하야
쥬견업는 재라 응락하고가니라 위씨 다시가 궁인을 종용이 청하야 왈 우리 상봉하호지오
래도 다미양척스를 생각하야 초창할뿐아나리오 놀은 특별이 인명을 위하야그뒤에 배
약을 구코저 청함이라하고인하야 춘월을 그려쳐왈 천비느녀의 심복이라 황리지익

으로 주인을 더신 하야 조직에 계검 두원 혼이 될 변하니 비록 성명을 보전 하얏스나 면목을
 을 훼손 하야 정이 축연 하더니 의원의 말이 금창약을 슈궁혈에 화하야 바른 족나 흐리라
 하니 금창약은 엇으려니와 슈궁혈은 귀흔 물건이라 엇지 엇으리오 드름 애궁중에 만타
 하니 그디는 잔명을 조비 하야 엇어 줄 쇼냐가 궁인이 춘월의 모양을 보고 악연실식 하야
 곡절을 물은 대위 씨이에 경력 할바를 일일이 고하고 탄왈로 신이 향일녀의 혼수를 인
 연 하야 태후 씨엄교를 뒀옵고 지금 사지송음함을 이기지 못하느니 그디는 곳 하야 등철
 하야로 신의 죄를 더하지 말녀니와 벽성선의 잔악함은 독흔 비암이오 교사하느니라 괴
 변이 무수 하야 양씨 일문이 망하게 되얏스니로 신이 녀의 평생을 위하야 합연이 모르
 고져 하노라가 궁인이 경왕 귀부환란이 이곳 처히 연하니 엇지 조직을 근포하 고간인을
 사하하야 징일려 박하느노리 업스오리 잇가 위씨 탄왈이 다 녀의 신위라 신수를 엇
 지도 망하리오 하를며 우리 상공이 년로 무고 하샤 규문 지스를 두번 등철코져 아니시니
 엇지 하리오가 궁인이 묵묵히 도라가 즉시 약을 보내고 바로 태후궁중에 드러가 황부과
 변과 위씨 말씀을 세세이 고하며 왕황 씨 비록 부덕이 적다 하나 벽성선의 잔사함이 또한
 업지 아닌가 하옵느니 위씨는 랑랑의 고홀하시는 배라 이러 혼일을 당하야 엇지 굶어 굶
 히지 아니시리 잇가 태후 불열왈 일변지언을 엇지 준신하리오 하시더라 익일런치 조회
 를 밧으실시 간관왕세창이 일장 표를 올리니 그 표에 왈
 風化法綱 國家大政 出戰元帥 楊昌曲 賤妾碧城仙 淫亂行實
 풍화법강은 국가의 대정이라 이제 출전원슈 양창곡의 천첩벽성선이 음란한 형실과

狡惡經綸 主母殺害 毒藥 刺客
 교악헌경륜으로 주모를 살해코져 하야 처음 독약을 시험하고 조차 조직을 보내여 승
 相黃義秉 府中 侍婢 命在時刻 聽聞駭然 事機凶
 상황의병의 부중에 드러가 그릇 시비를 쪼르 명지시각하니 령문이 히연하고 소고흥
 慘 衆妾主母 謀害 風化損傷 刺客閨門
 참함은 님의 지말고 중첩이 주모를 모해하니 이는 풍화의 손상함이오 조직이 규문에
 橫行 法綱 伏願陛下 法府 爲先刺客 跟捕
 횡행하니 이는 법강이 업습이라 복원 폐하는 법부에 신칙하샤 위선 조직을 근포하시
 碧城仙 治罪 風化法綱
 고또 헌벽성선을 처죄하샤 풍화법강을 세우쇼셔
 상이대경하샤 황각로를 보시며 이는 경의가식라 엇지 말하지 아니하노 황각로 돈슈왈
 신이 조모지년으로 외람이대신 지렬에 처하야 물너가지 못하고 자로가 잔지스르련 폐
 에 등철함이 불감하고로 앙달치 못하느니 다련지 침음왈 비록 여향쇼민의 집이라 도조
 직의 출입함이 놀나온일이여늘하를며 원로대신의 집에 이르러 변이잇스리오 다만 조
 직의 종적이은 밑하니 졸연히 잡지 못하리라 그 뒤보낸을 엇지 사하하리오 황각로 주왈
 신이 향일벽성선의 일로 랑전예 앙달함이잇습더니 조당의론이 신의 협잡함을의심하
 오나 신이 비슈를 훔느니 고엇지 규중부녀의 세쇄흔스정을 가져련령을 번거하리오 벽
 성선의 잔상은 도하에 랑자하바라 금일 조직이 변이또 헌선랑의 보낸배니 별로 사하하
 배업슬가하느니 다하고인하야 왈 조직의 입으로 선랑의 일을스스로 출하야도 하벽
 성이 무인부지하오이다상이진로하샤 하교왈 두가지스는혹인가의잇는배나 엇지 조

직을 처결함이 아니요 처량자함이 오위선직을 근포하고 벽성선은 본부로 축출하라
 신대면 전어시 주왈 벽성선을 임의 본부로 축출하즉 그들 곳을 아지 못함오니 금의부로
 가둘가함니이다상이량구히 생각함시더니 답왈 이는 곳쳐분부할지니 선량의 일은 그
 만두고 직을 근포하라함시다런지과조함시고 태후궁중에 니르사한담함시다태
 후씨 선량의 일을 고함시고 그 처치란 처함을 말함신대 태휘미쇼왈로신이 또호드른
 바오나이는 불과 규문지너투가지심으로 말미암음이라시비비록 장대함나세췌호곡
 절과 설만호말술을 조영이엇지 참섭함리오호를며 만일 일호원동함이잇슨즉너저는
 편성이라 엄령지하에 반드스시성을 경이히 할지니이엇지 감상 화괴함야성덕의 루됨
 이 업스리오상이미쇼왈모후의마르치심이 극진함시니쇼지일게잇서아즉풍파를안
 돈고양창곡을기드리게함니이다태휘왈무숨게괴니잇고상왕선량을아즉고향으
 로보내라함이엇더함리잇가태휘미쇼왈폐해이곳치성각함심은로신의밋칠배아니
 라량편지되이에셔더함이업술가함니이다상이쇼왈쇼지미양황씨의일을드르즉스
 정이업지못함거늘모후는일호고렴함심이업스오니혹역을할가함니이다태휘왈이
 것이정히더를위함이라위씨모네부덕을다지못함고다만로신을밋어저연교양방저
 함이잇술가저함함니이다상이유유함시더라익일조회에상이황윤량각로를디함샤
 하교왈벽성선의일이비록심분히연함나양창곡은벼슬이대신지렬에쳐고집이레
 디함는배라엇지거연이임첩으로써법부에나가게함리오집이호방략을지시할지

니경 등은 다 창곡의 인애라 환란상구함이 맛당홀지니 금일 퇴조하야 가는길에 양현을
가보고 벽성션을 아죽고 향으로 보내여가 잔풍파를 침식케하고 창곡의 환가하기를 기
드려 처치케하라이때 윤각회향각로의 협잡하야이곳치다 틈을 괴로이녀이고 또 홀싱
각함에 셤랑으로하야곰잠간고향에 도라가 평안이잇슴이 무방홀썃호지라 즉시 주알
성괴이곳치곡진하시니 신등이 맛당히 양현을가보고 성지를 전하오리이다하교 조회
를파하교나올식향각회종시불열하야싱각하되내녀을위하야 비록 흠족히설치는
못하얏스나 오허려다행호바는고향으로방축호즉우션복견광경이족히분함을풀지
니내맛당히가즉각에축송하리라하교황망이양부로오니엇지호고하회를보라

데이십회

출월이변복하야산화암에가고

春月變服散花庵

우격이취하야십조가에지나다

禹檄醉過十字街

각설황각되양부에와원외를보고성지를전하야왈로뷔임의황명을받조왔스니천기를축송훈후도가리라아이오윤각되또니르러왈금일황상쳐분은전허풍파를안돈코저하심이라형은축용구쳐하야성상의곡진하신명의를저버리지말라하고즉시도라가니원의니당에드러와선랑을불내귀먹고눈어두어몸을다가가도를정제치못하고임교를뒀으니금일쳐디극히황름훈지라네아즉고향으로도라가원슈의회군

落橋

항기를기드리라선랑이루쉬영영하야불감양시하거늘원외측연하야지삼위로호후
 회장을지휘하야일량쇼거에수기창두로조연을부중에두고쇼청과동거하야보낼시
 선랑이부인과윤쇼저씨하직호후계하에늘임애주위홍협을적시니이날양부상해슈
 참하야루쉬여우하고위로하는말은빅일이무광호별아니라윤황양부시비구름조치
 모여구경하다가참아보지못하야얼골을돌나고혹오열함을세듯지못하니황각되심
 중에불락하야싱각하되조로잔샤호인물이인정을엇느니이엇지녀신상에방해
 롬지아나리오하더라차설선랑이수리를모라강주로향호식락교청은은거름마다멀
 어지고천리장정은산천이텅텅하니고단호형석과외로운심시흐른물과높은언덕
 을림하야촌장이낚어지고녁슬살오더니호연일진풍광이급호비를모라런디망망하
 고지척을분변치못호지라겨오삼스심리를형하야귀덤에설시엇지잠을일우리오등
 잔을도도로조류양인이쳐량이안져싱각하되내신세괴이하도다어려서부모를일코
 가련호쳐디와표박호종적이의탁호곳이업다가의외량한림을맛나호조각모음이바
 다못치우털고래산곳치브랏더니오늘이일이엇지호길이노강주에부모천척이업스
 니누구를바라고가며내이곳을싸는지주년이못되야이물골로도라가니엇지붓그럽
 지아니하며또호그명석이무엇이뇨나라죄인이라호죽조명에득죄함이업고스문의
 출뵈라호죽군조의본의아니니진퇴호장이당호곳이업는지라출하리이곳에서목숨
 을돈어런디신명씨샤례하리라하고호중에게은칼을내여들고루쉬여우하더니쇼청

李夫人 鴻都客

이읍고왈랑조의빙설호흔모음을창런이알으시고빅일이조림하시니만일이곳에서
 불호신즉이노잔인의소원을일우고루명을신설호날이업슬지니출하리승당도관
 을차자일신을의탁하야때를기드릴지니엇지이러호거조를하시리오선랑이탄왈궁
 박호인성이갈수록궁박하니무엇을기드리며어느때를바라오내이제이몸이되엿
 스니반드시초성의적악은업스려니와전성의악업으로화망을버셔날길이업스니엇
 지호번패히죽어모르니만하리오쇼청이다시고왈천비논드르니군조의아니면죽
 지아니호다하오니랑조의금일소회는천비아지못하느이다대범녀조의죽을일이두
 가지라어려서부모를위하야죽은죽호형이라호거시오자라서가부를위하야죽은죽
 렬형이라호지니만일이두가지박패죽은죽이논음녀투부의한악호형실이라이를엇
 지싱각지아니하시느니잇가하를며만리절역에창망이안조신우리상공이가중환란
 을망연이모르시고타일환가하샤이소문을드르신즉그심시엇다하시리잇고각침야
 장에리부인의진면을싱각하샤금궐셔상에홍도직을보내고암연쇼창하샤쇼혼단장
 하심을랑지만일알으신즉비록도라가느정령이라도반드시위하야던도방황하며정
 근을참아낚치못호지니이때를당하야랑지비록왕스를추회하시고환호단을구하나
 엿지엇으리오언미필에선랑이두줄기눈물을금치못하야왈쇼청아네나를그릇침이
 아나냐내땃렬치못함을호하노라하고죽시덤파를불너문왈나는락양으로가는사람
 이라련일외관에몽식불길하니만일이근처에령험호붓세잇슬진대향화로잠잔기도

하고 고저하노니혹근처에도관승당이잇스나담패왈여기서도로황성을향하야십
여리를드러간즉일기승당이잇스니일흔은산화암이라관음불을공양하야그장령협
하니이다션랑이대희하야던명에형장을지축하야산화암을차가니과연경개유슈
하고암중에섬여명녀승이잇서탑상에삼불을되섯스니금광이찬란하고좌우에처화
를세장스며비단장과슈노은금랑을무수이걸엇스니이상향내암중에그득하더라
모든녀승이션랑의용모를보고막불흠양하야다도와차를드리며좌우에떠나지아니
하더라저녀지를과한후션랑이그주장녀승을중용이청하야왈첩은략양사름으로잔
인의화를피하야션스의방장을빌어수월류코저하노니보살의뜻이웃더하노녀승이
합장왈불가느즈비를일삼느니더그흐션랑지일시익운을피하야루추흔곳에의탁고
저하시니엇지영형치아니리잇고션랑이치사하고형리를안돈하고창두와거장을돌
너보낼시일봉서를윤쇼저씨부처심곡을대강고하니라차설황각되당일분부에도라
와부인과쇼저를보고왈로워오늘이야네원슈를갑도다하고션랑을강주로축송흔일
을말흔대위부인이링쇼왈독흔비암과모진짐승을죽이지못하고다만놀내이니이느
도로혀후환을더함으로이다각되묵묵부답하고불쾌하야나가더라위씨이에출월
을지성으로구호하야일삭이지나매상체비록나으나임의완인이못되리라썩관흔적
과추흔면목이넋날출월은아닐니라이때출월이거울을들어제얼굴을빛쳐보며니
를갈고밍세왈천일벽성선은쇼저의덕국이러니금일벽성선은출월의원슈라천비결

단코이원슈를잡고말니라위씨탄왈천기이제강류로도라가평안이누엇스니양월슈
도라온즉일이뒤집히여우리모녀로주의성명이엇지될줄알나오출월왈부인은근심
치말으쇼셔천비맛당히몬져션랑의거처를안후썰하리이다하더라츠시는정월상원
이라황태회궁인가씨를부르스왕내히마다황상을위하야하던불스를폐치못할지니
네향화과품을가져금일상원에산화암에가기도하고오라하신대가궁인이명을받아
즉시산화암에나르르불스를베풀쳐보개운변은령풍에느부치고법고불음은도장을
진동하야만세를불너슈복을발원흔후가궁인이불스를못고암중에구경홀시동편형
각에나르러일기정쇄흔방이잇스되문을닫치고인척이업는듯하거늘가궁인이문
을열고저흔대일기녀승이중용고왈이논직실이라일전에일위랑지지가사다가신
상이불평하야이곳에류하시니그랑지성품이줄하야외인을괴하느이다가궁인이쇼
왈내만일남조흐면피하려니와동시너지라잠잔봄이무슴방해하리오하고문을열
매일기미인이일기차환과쇼슬이안졌스니아릿다온티도는진짓경국지석이오뜻다
온용모는또흔청춘지년이라취미에잠잔무궁흔근심을씨엇스며홍협에은은이슈습
흔괴석이잇서철분요도하고심분단아하거늘가궁인이심중에대경하야압히나아가
문왈엇더하랴지더그치고은조질로적료흔승당에두류하시느노션랑이추파를들어
가궁인을보고얼굴에홍흔이오르며력력인성으로느직히되왈첩은지나가사름이
라신병을인연하야귀덤이변잡하기로이곳에와도섭고저함이니이다가궁인이그말

을듯고 그 용모를 볼애 스스로 랑하는 모습에 애연이 성기는지라 인하여 녀히 안조며
 왈첩은 암중에 괴도하라는 사람이니 성은가 씨라 이 제 랑조의 아름다운 용광을 접하고
 아담한 말슴을 드름애 자연향모하는 모습에 일즉 천속함조하니 아지 못케 라 랑조의 춘
 광이 열마나 되시며 뜻다운 성씨를 뒤라하시니 잇가 선랑이 반겨 왈첩도 또한 가씨오
 천호나 은 십륙세니 이다가 궁인이 더욱 반겨 왈동성은 빅디 지친이니 첩이 오늘도라가
 지 못할지라 맛당히 못치경야하리라 하고 조의 침구를 움겨 선랑의 처소로오니 선랑이
 또한 고적히 잇다가 궁인의 정일호조 품과 관곡호뜻을 탄복할뿐아니라 또한 흐름이
 다르나 근원이 못고 지엽이 각각이나 씨리호가지라 비록 십분 심곡을 도출치아니나 미
 미호쥬작과는 근호정회를 앗가지아니하니 궁인은 본디 해힐호녀지라 선랑의 언어
 동정이 범상치아님을 보고 만히 문왈첩이 임의 동성으로 엇지 사괘이 엇허말슴이 겁
 지아니리 오첩이 랑조의 범절을 볼애 심상호여 향사람이아니니 엇지 이곳에외로이니
 르시노심곡을괴이지말라 선랑이그다정호를보고 비록 신세를 말호은불긴하니 또한
 과히 속임은의아니라이에 대강고왈첩은 본디 랑양사람으로 부모천척이 업고가종의
 환란을 맛나몸이 갈바를 모르는고로 이곳에의탁하야 환란이 침정함을기드리노니 첩
 이 비록나히어리나 계스를그만 열력함애 초로인성이 무비고히라스괴를보아 샅발호
 고승리도스를조차놀고저하노이다 말을못치고괴식이 참담호거늘가 궁인이그말호
 기어려운곡절이잇슴을 짐작호고다시강박호못지 못하니 정경을측연호야위로왈첩

雲蟾

豫讓

趙襄子

萬歲橋 張先生

이 랑조의 소조를아지 못하니 랑조의 용모를 볼애 전정이 골몰치아니리니 엇지일시익
 운을견디지 못하야 평성을그릇치리오 암조는 첩이왕리하야 집과다름업는곳이오모
 든녀승은다첩의 심복이라 랑조를위하야 부락호려니와 랑조는모음을널녀불길호신
 각을두지말라 선랑이치사호려니와 일가궁인이도라갈시 선랑의 손을잡고서로연연
 하야출아떠나지 못호며 모든녀승을향하야면면이 부락왈가 랑조로쥬의 조석반공은
 첩이약잔도으려니와 만일년쇼부인이편협호신성각으로록빈운발에레도를다이는
 거죄잇슨즉제위보살이다시나를디호날이 업슬뿐아니라 또한죄척을도망치 못호리
 라제승이합장슈명호니 선랑이그극진함을샤례호더라가 궁인이도라와 래후씨복명
 호후조괴쳐소에니르러 선랑을넋지 못호야수일후시비운섬을명호야수량은조와일
 합찬물을가져 산화암에가가 랑조씨드리고오라호니 운섬이응명호고가니라차설춘
 월이선랑의거처를알고저하야다시번복호고문을날시 스스로용모를붓그려푸른슈
 건으로머리와귀를싸고일창고악을면부에덥혀코를엄척호후회회쇼왈넋적예양은
 철신위라하야조양조의원슈를갑호더니이제춘월은부모의유례를앗가지아니호고
 일편고심으로선랑을모해코저하노이다누구를위호이니잇고위씨쇼왈네만일성
 공호즉맛당히천금을주어평성패락을누리게호리라춘월이웃고나가며성각호되우
 물의고기를바다에노왓스니잔곳을어디가무르리오내드르니만세교아래장선성점
 술이신통호야황성중데일명복이라호니내차자가무려보리라호고즉시수량은조를

가지고 장선성을 차차 보고 왈 나는 조금 성사는 사름이라 맛춤일기 슈인이 잇서 그도 망
흔 곳을 알길 업스니 선성은 불히 그치쇼셔 장선성이 침음양구에 패를 더지며 왈 성
인이 복술을 내심은 장초 피홍취길하야 인잔을 구제코져 하심이라 이제 패상을 봄에 그
디금년 신쇠대 단불길하니 심분조심하야 남과 작척지 말라 비록 슈인이라도 감화흔 즉
은인이 되느니라 춘월이 쇼왈 선성은 긴말 말고 그간 곳만 지시하라고 수량은 즈를 내
여 주니 장선성 왈 그디의 슈인이 처음은 남으로 가다가 나 좋은 길을 돌녀 도로 북으로 왔
스니 만일 산중에 숨지 아니하즉 반드시 죽엇슬 가하노라 춘월이 다시 조세이 못하고 저하
더니 문복하라고는 재문이 며 헛거늘 종적 이탄로 홀가하야 즉시 장선성을 작별하고 도
라 올길에서 운심을 만나니 전일 위부인게 서수 초안면이 잇는 자라 춘월이 불너 왈 랑
은어디 가느뇨 섬이 당황부답하니 원리 춘월의 용모와 복식이 다름에 창졸에 괴억지 못
함이라 춘월이 쇼왈 나는 그스이 괴질을 엿어 이모양이 되얏스니 응당 물나 봄이 당연하
도다 맛춤드르니 만세교 아래 신통흔 의원이 잇다 하기가 보고 오느길이라 병중에 축풍
함을 녀려 하야 잠잔 남복을 끼착하얏더니 내모양을 내보나 그장우스우니 운량은 흥보
지 말라 섬이 바야흐로 놀나와 춘랑의 넋얼골이 일분이 업스니 무슴병이 더욱치드려느
뇨 춘월이 손으로 코를 그리오며 탄왈 무비신쉬라 엿하리오 죽지아님이 다행하거
노라 운섬 왈 나는 우리 랑의 명을 받조와 남교산 화암에 가노라 춘월 왈 산화암은 무슴
일로 가느뇨 운섬 왈 일전에 우리 랑이 암중에 괴도하라고 하셔더니 일위 랑 즈를 만나시

니 이에 동성지천이라 일면여 구하야 금일서 잔과는 즈를 가져그 랑 조색드리고 오라하
시기가 노라 춘월은 음흉흔 인물이라 이 말을 듣고 일변 놀나며 일변의 아하야 다시 조세
이 알고 저하야 거짓우어 왈 운량은 나를 속이지 말라 내또 혼일전 산화암에 불공하거
스나 일죽이러한 랑 즈를 보지 못하얏스니 언제 왔다하느뇨 섬이 쇼와 춘랑은 늙을 잘 속
이거니와 나는 속일 줄 모르노라 녀승의 소견을 드름에 그 랑 저 암중에 온지 불과 일망이
니 일기 차환과 직실에 처하야 사름을 괴하하느니 이노반드시 언성이 줄함이 다다 만월
터 화용은 무쌍흔 조식이 라 우리 랑이 한번 보시고 도라 오샤 이때 것츠아 낫지 못하
느니 엿지 거짓말하리오 춘월이 일일이 듯고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선랑이로 다하교 심
중에 대희하야 운심을 총총이 작별하고 망망이 도라와 부인과 쇼져 씨고 혼대 위부인이
경왈 가궁인이 만일 스괴를 안즉 태후 랑이 엿지 모르시며 태회알으신 즉 황상이 엿지
듯지 못하시리오 춘월이 쇼왈 부인은 근심치마르쇼셔 선랑은 일정흔 녀지라 가궁인을
되하야 심곡을 토출치 아니하얏실 가하오니 천비 맛당히 그 만히 본 후 묘제를 행하리이
다 하교 익일 춘월이 복식을 못쳐 일기 유산괴의 모양으로 황혼을 띄여 산화암에 나르러
자고 감을 청하느니 녀승이 일간 직실을 덩하야 주거늘 춘월이 야심 후 그 만히 몸을 나르러
괴나와 정당과 횡각으로 도라다니며 창밖에서 드름에 곳곳이 송경녀 불하느노래 동
편에 일간 직실이 잇고 등잔이 희미하중 인적이 잠잠하거늘 춘월이 그 만히 창을 뜯코여
어보니 일위미인이 주벽하야 누엇스니 이에 선랑이 오일기 차환이 축하에 안졌스니 이

에 쇼청이라 춘월이 즉시 자최를 만히 하야 괴실로 도라와 미명에 녀승을 작별하고 부
중에 와 쇼저와 부인을 보고 희희소왈 양원슈부중이 갑고 갑혀 춘월의 슈단을 다하지 못
하얏더니 하늘이 도오샤 이제 셤랑의로 주를 디옥에 너흐니 춘월의 용계함이 회회할가
하느이다 황쇼제경왕 셤랑이 과연 암중에 있더니 춘월이 탄왈 천비 셤랑을 양부에서 불
적은 다만 절다가 인으로 알앗더니 이제 산화암불등압해 만히 보라 봄에 실로 진제인
물이 아니라 만일 요되 셤지 아닌즉 반드시 옥경 셤네하 강함이니 양상공이 비록 열석간
장이 나엇지 침혹지 아니리오 만일 초인을 다시 양부에 드려보내 즉 우리 쇼저의 신세는
반중에 구은 구슬로 고향가하느이다 위부인이 춘월의 손을 잡아 왈 춘월아 쇼저의 평성
은 죽너의 평성이라 쇼제득의 혼죽너도 득의 할거시오 쇼제 처랑 혼죽너도 처랑 할지니
모음을 허소이 먹지 말라 춘월이 이에 좌우를 물니고 고왈 천비 일제잇스니 천비의 오라
비 춘성이 방당 무퇴하야 황성 쇼년을 천 혼재 만흐니 그 중더 옥방 당 혼재잇스되 성은 우
오명은 격이라 용력이 과인하고 주식을 탐하야 스심을 불고하느니 춘성을 인연하야 향
괴를 루설 혼죽 봄바람의 밋친나뉘는는 님을 엇지 탐하지 아니하리 오일이 여의 혼죽 셤
랑의 아름다운 조질 이 뒷간에 떠려져 일성을 허여나지 못할거시오 스불여의 혼죽 일루
잔명이 검두고 혼됨을 면치 못할거시오 어초어피에 우리 쇼저의 눈의 가시를 업시 할가
하느이다 위부인이 대희하야 밤비도 모음을 지축하니 춘월이 웃고 나가니라 차설 우겨
은 무퇴 무법 혼재라 루초 범법하고 부속을 처결하야 성명을 곳치고 양양이다 나더니 일

春成
禹檄

西施
明妃
貴妃

일은 잡류 쇼년 십여인이 십조가에서 술먹고 짓거리다가 춘성을 만나 서로 손을 잡고 다
시 주가를 차자 술을 마실시 춘성이 홀연 장탄왈 남지 세상에 낫다가 절다가 인을 지척에
두고 취치 못하느니 엇지 앓지 아니리오 우겨 왈 그 무슴 말이뇨 춘성이 웃고 되답지 아니
하느니 우겨 이 괴로이 못거늘 춘성 왈 이곳이 종용치 못하느니 금야내 집으로와 드르라우겨
이 응락하고 모음이 급함애 황혼에 춘성의 집에 나르니 춘성이 그 손을 잡아 좌에 안치며
쇼왈 내공을 위하야 일리경 국지식을 중미하려니와 공의 슈단이 졸하야 성스치 못할가
하노라우겨 왈 다만 말할지이다 춘성 왈 내드르니 강주 청루에 일기 명기잇스니 월티화
용은 고금에 무쌍하고 가무 풍류는 당세에 독보하야 혼변 쟁금애 월나라 서시는 그 추함을
을 못그리고 한 번 우음애 명황의 귀비는 실총함을 식과하느니 공이 이긋치 절다가 인을 엇
지도 모치 아니하느니 우겨 이 잡은 손을 쉼쳐 춘성의 뺨을 쳐 왈 이놈아 춘성아 내아모리
방당하야 상하 산판에 구애함이 업스나네 불과 황각로의로 속으로 나를 룡락하느니 강
쥐여 괴서 멧린고 춘성이 또 혼거짓로 왈 속담에 중미를 그릇 혼죽 세 번 뺨마 줌은 잇거니
와 충곡지 담을 다듯지 아니하느니고 이긋치하느니 내다시 말할배업도다 우겨 이다시 쇼왈 만
일그러 홀진대 꽤히 말하랴 내세 잔술로 사과하리라 하고다시 춘성의 손을 잡아 왈 이제
그미인이 황성에 왔느니 춘성이 역시 웃고 왈 그미인이 셔울 왔다가 도라가는 길에 산화
암에 머므러 신병을 도섭하느니 공은 쉼니가도 모하랴 우겨 이대희하야 잡은 손을 싸셔
리고 나서며 왈 내이제가 이 밤을 넘기지 아니하느니라 춘성이 쇼왈 슈연이나 그미인의

뜻이 높하얏달기어려울가노라 우격이렁쇼왈 내슈단에 달님이니 근심치말라 하고
 망망이 가니라 차설양원쉬동초를 보내고 성지를기드려 회군코져하더니 동최황명을
 밋조와 홍흔탈은 군스 일반을 주어 홍도국을 치게하고 원슈는 환군하라 하신쇼셔를 전
 하니 원쉬대명하야 홍스마를 불너 쇼셔를 뵈인대 홍스매 악연실식왈 쇼장이 무슴장략
 으로 중임을 독당하리잇고 원쉬침음하다가 임의일모험애 제장을 물니고 홍스마를 장
 중으로 불너 축을도고 옷깃을 쓸며 정대흔 빛을 띄여 왈 내랑으로더 브러 반년 풍진에
 고초를긋치하고 하늘이 도오사 개가 불너 황성으로 도라가는 날 수리를긋치하야도
 라 갈야하더니 황명이 정중하샤 이제 분로하야 나느명일 황성으로 도라가노니 랑은 군
 스를 동독하야 교지로가 속히 입공하고 도라오라 랑이 이 말을듯고 추파를들어 원슈
 의괴식을보며 록빈홍협에 루쉬덤덤하야 말이 엇가늘원쉬다시 정석왈 창곡이 비록 용
 렬하나 스정으로 군명을 거스리지아닐지니 쟈니 물너가 횡장을준바하라 랑이 눈물
 을거두고 추연왈 협이 혈혈너조로 빅만 군중의 항오에 참여하야 칼을두루며 창대를잡
 아 풍진을 무릅쓰고 붓그림을춤아 지우금일홍은엇지 공훈을 뜻두어 부귀를브람이리
 오다 만이 몸을브러스싱고 락을상공씩밋음이라 니이제 상공이 브리고 도라가실진대
 이또흔첩의조취함이라 첩이 만일고문대죽의 군조호구로 규범너축의례절을직히여
 상공이 빅량으로 마조사 항려로 되접하실진대 엇지일이잇스며이말습이느리리잇
 고 첩이 비록 청루천종이나 먹음은모음은옥이조결하고 어름의몸음을양두치아니하

리니 출아리 군령을넘어 잔약혼몸에도 부슈의 칼을밧을지언덩고 단흔종적으로 장부
 에셋기여 독히치아니리이다 언필에 밧을긋적이며 우에그득하고 처량하루쉬옥협
 을적시거늘 원쉬바야흐로 미쇼왈련지 홍흔탈의 잔약혼이더긋음을모르시고 중임을
 밋기시니 조영일이엇지한심치아니리오하거늘 랑이 바야흐로 원슈의 롭락혼인줄
 알고 슈습하야 되답지아니하니 아지 못게라 원쉬필경엇지흔고하회를보라

데이십일회

적한을맛나 마달이사름을구하고

逢賊漢馬達救人

도관에의탁하야 셴랑이안신하다

托道觀仙娘安身

각설이때 원쉬랑을흔번 롭락하고 청신에 제장을모아 상의홀시원쉬소스마를보며
 왈 근일조영일이이긋치던도하니 엇지한심치아니리오내이제 표를을니고져하니 장
 군은나를위하야 쓰라하고 입으로부르니그표에왈

征南元帥臣楊昌曲頓首百拜于皇帝陛下
古之聖君 將帥 邊方

정남원슈신양창곡은돈슈빅비우왕제폐하하노니
威儀 褒獎

시천히수리를밀며 궁시부월과 잔과고비로써그위의를포장함은다만그괴운을도
功勳 激動 宗廟社稷 重

도고공훈을격동할뿐아니라 종묘사직의중함이여기잇고 국가흥망의중대함이달
南方 絕遠 王化 風俗 不順 盜賊

나니은혜로달니며위엄으로호령하야춘생추살고일장일이아닌죽평정홀날이
恩惠 威嚴 號令 春生秋殺 一張一弛 臣 聖意
 업슬지라폐해이제홍혼탈로수천괴를거느려홍도국을치라하시니신이성의를아
陛下 紅渾脫 數千騎 紅桃國
 지못하느이다홍도국의강약을폐해측량치못하실거시오홍혼탈의위인을폐해시
遜然 重任 宗社安危 國家興亡 疑信間 嘗試
 험치못하신바여늘거연이중임을맛기샤종샤안위와국가홍망을의신간에상시하
臣 疑惑 伏願陛下 委命
 시니신의혹함을이기지못하오니복원폐하는위명을거두시고다시넌니무르샤
大事 後悔
 대스에후회업게하소서

원슈표를봉하야마달을주어왈군귀급하니장군은성야로썰니도라오라마달이령령
 하고황성으로향하야십여명갑스를다리고가니라초시마달이쥬야로힝홀시종로에
 턴스를맞나비록다시조세잇슴을아나감히중지치못하야턴스는남으로가고마달은
 황성에니르러턴즈씩표를을넘어턴지대열하샤황윤량각로를보시며왈창곡의위국
 진충함이이긋호니쇼적을엇지죽히근심하리오하시고표를지삼보시며마달로우림
 장군을비하샤즉시회정케하시니마달이하직하고남으로가니라차설선랑이산화암
 에몸을의탁하야종적이문밖글나지아니하고낮이면녀승과불경을강론하고밤이면
 분향독좌하야세월을보내니비록일신은청정하나오직육망난망이오불스즈스하느
 바는턴애만리의군즈를싱각하야오미경경홀일편단심이라일일은사창을의지하야

스몽비몽중양원슈육룡을멍에하야어디로가며왈내상대의명을밧아남방의요귀를
 잡으라가노라하거늘선랑이긋치감을청홀대원슈산호채죽을느리혀주는지라선랑
 이잡고공중에오르라하다가떠려져돌나서니숨이라심중에불길하야녀승을청하야
 왈근일내몽시요란하니불전에향화로기도코저하노라녀승왈삼불데석은즈비를쥬
 장하실스름이라인간화복과강마제살함은십왕이웃듬이니십왕전에비르쇼셔선랑
 로쥬이에목욕지게하고향화를밧드러십왕전에니르니암즈뒤언덕에잇더라선랑이
 분향암축왈

賤妾碧城仙

前生功德

三災八難

甘受

家夫楊公

詩禮門中

忠孝家聲

訓習

天地神明

福祿

甘受

家夫楊公

시례문중의

충효가성

훈습하야

턴디신명의

복록을느리

오실바라

이제황명을밧

조와만리

밧고잇스오

니복원십왕

은명조를느리

오샤간과

고비에

침식이여상하고

시석풍塵

起居無恙

災厄消滅

壽福昌盛

昌盛

昌盛

昌盛

선랑이빌기를못친후지비하고장탄초창하야하더라도문전에남애녀승이고왈금
 야월석이명쾌하니랑조는이뒤석뒤에오르샤삼회를풀게하쇼셔선랑이비록불공하
 나곤청함을인하야쇼청과녀승을다리고석뒤에오르니녀승이고왈이되비록놓지아
 니하나청명홀날멀니브라본죽락양형산이완연이되느이다하거늘선랑이쥬파를들
 어남편을향하야산연함루하니녀승왈랑지엇지남방을향하야이긋치슬허하시느니

잇가 선랑 왈 나는 남방 사람이라 조연심서 처창호도 다 말이 못지 못하야 동구에 화광이
조요호중 십여기 한채성군 작당하야 암중을 향하고 일제이다라 드니 녀승이 대경왈이
반드시 강도의 무리로 다하고 화망연도 이느려가더니 암중을 뒤집으며 그중 일기 한채
홍녕호소리로 가랑조귀 실을 찾거늘 선랑이 요청을 보며 왈이 엇지 우리로 주의 여익이
미진하야 잔인 풍패다 시날미아니리오 요청이 선랑을 붓들고 올며 왈적한의 괴세이
호니 엇지 여괴서 죽음을 기드리리오 선랑이 탄왈우리 이제 잔악한 녀로 비록도 망하
나 다만 욕됨이 더할지니 엇지 화를 면하리오 요청이 울며 왈일이 급하니 랑조는 조저치
마르쇼셔하고 선랑의 손을 잇글고 피를 두다라 날시월광이 비록잇스나 산길이 희미하
야 십년구도하야 돌을 차며 덤불을 헛쳐 슈혜를 일코의상이 찌어지니 임의 각력이 진하
고 발이 부르른지라 선랑이 인하야 물너안조며 탄왈이 엇지 죽음만하리오 요청아 너는
싱도를 차자은 신하얏다가 내신례를 거두어 원슈회군하시는로 변에 못어 망부산 일편
석을 더신하게하랴고 회중으로 적은 칼을 내여 조경코저하니 요청이 화망이 칼을 아
셔 완랑조는 다시 세를 보아 만일일이 불행하실진대 첩이 엇지 홀로 살니오하고 좌우
를 훑혀보니 임의 외에느려 탄대되 압히잇더라 잠간수여다시도 망코저하더니 화광
이 피를 덤허느려오며 사람의 그림자나모스이에 훑혀져 바회틈수플밋을 뒤져오는지
라 선랑로 쥐죽기를 다하야 다시 내려대로를 조차게오수 십보를 행함애 적한이 임의 산
에느려고 함하며 또 호대로 조차풍우조치조차오거늘 요청이 선랑을 안고 길에 업디

鹽夫山

여호련동곡왈유유창련야이 엇지이다지 무심하시뇨연미필에 홀연물받자 최들니며
우뢰조흔소리크게 웨여왈적한은 닷지말라하거늘 선랑로 쥐눈을 들어본즉 월하에 일
위장군이 몸에 전포를 남고 손에 장창을 들고 물을 달녀적한을 조치니 그뒤에 십여명갑
식각각 슈중에 환도를 싸쳐들고 일제이 남함하고 쓰르니 그중 일기 적한이 막대를 들니
그장슈를 더덕고저하다가 그장슈크게 썩짓고 창으로 호련썩썩애 적한이 얼골이 썰니
고스면으로 훑혀져 잔곳이 엮는지라 그장슈바야호로 물을 돌녀오거늘 선랑로 쥐더욱
겁내여 썰기를 마지아니하더니 그장슈갇히니 르려 물을 멈추고 마상에서 소리를 하야 왈
엇더호랑지무슴곡절로더조치고 단이나섯스며 적한은 엇지하야 맛느뇨그리허를조
세듯고저하노라하거늘 요청이 더욱 썰며 말을 못하니 그장슈요왈나는 장령을 밋드려
황성에 왔다가 도로 남방으로 가는장슈라 랑조를 해칠사람이아니니 랑조는 꽤히말하
라 선랑이 일변 놀나며 일변 반겨바야호로 정신을 초려 요청으로 말을 전하야 왈우리는
지나가느형인이라 익운을 당하얏거니와 급히 못좁노니 장군이 남방으로 가신다하니
어디로 가시는니 잇가 그장슈왈나는 정남도원슈양승상의 막하편장이라 엇지그리조
세문느뇨 선랑로 쥐양승삼조를 듯더니 홍중이 억척하고 정신이 황홀하야 서로 붓들
고 실성대곡하며 엇지 홀술모르니 원리 그장슈별인이아니라 마달이 원슈의 표를 밋치
고 회정홀식군중일이 급함으로 밤을 도아행하더니 홀연로 상에녀조의 곡성이나며 화
광이 조요호중 무수한제머리를 슈건으로 동이고 성군작당하야 조차오니 못지아녀

적한임을알니라비록같이바부나엇지인명을구치아니리오적한을또친후곡절을알고져야신근이못더니도로혀조그중적을듯고억척하야울물보고마달이크게의심하야다시문왈랑지엇지나의말을듯고감창하느뇨선랑이밋쳐답지못하야쇼청이되왈우리랑조는이에양원슈의쇼실이로소이다마달이다시문왈양원슈는엇더하신양원슈뇨쇼청왈조금성례일방에게신양송상이시니만왕나락을치라출전하신지임의반년이니이다마달이대경하야황망이물을느려두어거름을물너서며왈그러하실진대더말하느차환은이리갓가와조세히말하라선랑이쇼청을보며말을전하야왈첩이이디경을당하야비록힘로지인이라도성할하신은덕을샤례하야례절의구에흠을도라보지못하려든가물며장군은우리원슈의심복이시리오일실지인과다름이업스니엇지말숨을다하지아니리잇고첩이원슈의출전하신후로가중풍과를당하야느조이나약혼성품으로죽지못하고이러한광경을감슈하니장군을향하야얼골이듯거온지라로상에지필이업서구구심회를원슈씩붓치지못하오니장군은도라가사첩을위하야고하쇼셔첩이비록죽으나혼조각모음은더들곳치동구러원슈영중에비최일가하느이다마달이손을씻고몸을굽혀쇼청을덕하야왈차환은랑조씩고하쇼장은원슈문하우림장군마달이라장막지의군신부조와다름이업스오니이제랑조의곤익하심을보고엇지그저가리잇고랑지임의부중으로도라가지못하실진대쇼장이맛당히락신하실곳을엇어안돈하심을보고도라가원슈씩죄을낫이잇게하리이다하고갑

스를명하야압각덤에가적은교조를엇어오라하느니선랑이소양왈첩은궁박혼팔저라런디잔용남하야의탁홀짜이업슬지니장군은과렴치마르쇼셔마달왈쇼장이이곳에서랑조를죄음이불형하오니임의죄입고랑조의안신하심을못보고도라감은도리아닐뿐아니라또혼인정박기니쇼장의같이밋분지라랑조는썰니형케하쇼셔선랑이홀일업서몸을니려쇼청을붓들고형하야왈장군이첩을어디로가자하느뇨마달이이에창을집고거러인도하야수리를형하더니갑식덤중에가교조를엇어가지고망망이마조오거늘과달이쇼청드려왈차환은랑조를교상에피시라하교창을들고또혼물게올나와적한이반드시멀니가지아니하얏슬지니랑지이근처에두류하신죽엇지후환이업스리오쇼장을씩라일랑일더형하야유벽흔도관고찰을차자안돈하심을보고갈가하느이다선랑이그지극한정성을감동하교또원슈의은덕임을싱각하야교조에오름에마달이형장을지축하야다시벽여리를향하야각덤에느려문왈이곳에혹도관고찰이잇느냐주인이크르쳐왈예셔대로를드리고동으로십여리를간죽일죄명산이잇스니명은유마산이라산하에큰도관이잇느이다하거늘마달이대회하야다시형장을지축하야산하에나르니과연청슈혼산과괴이형경이크장유벽하더라일기도관이잇스니명은덤화관이라관중에벽여명녀도저잇서청정단아하거늘마달이이에도스를보고관뒤의수잔정쇄혼집을빌어선랑로쥬를그곳에안돈하교갑스이명을류하야잡인을금하게혼후마달이하직왈원슈황명을밋조와다시교지로가시니쇼장의같이밋

분지라 이곳이 유벽하야 랑조의 안신함이 편하실 가호니 존대를 보중하쇼셔 선랑이
즉시 일봉쇼찰을 닦가 원슈씩 붓친 후 함루하고 창연작별왈 첩이 데면에 구애하야 감샤
한 말슴을 다 못하오니 장군은 원슈를 되셔 대공을 일우시고 속히 도라오쇼셔 마달이 별
로 쇼청을 되하야 작별왈 차환은 랑조를 되셔 조심보호하라이 후회군호는 날 숙면이 될
지니 그때 반겨 맛고 쉼치 말라 쇼청이 붓그려 랑협에 흥훈이 마득하거늘 마달이 웃고
창을 들고 물게을 나남으로 가니라 선랑로 뒤죽은 목숨으로 의외마달을 맛나 안신할 곳
을 엿음에 쇼청이 또 한 깃뼘을 이기지 못하야로 뒤서로 마장군의 의를 칭송하며 모든 도
시 또 한 선랑로 주의 출중호조식을 놀나며 사랑하야 극진이 친친하더라 차설우격이 춘
성의 썬임을 듯고 무뢰비를 모라 산화암에 돌입하야 가랑조를 차즈니 녀승이 엿지마로
고하리 오우격이 대로하야 녀승을 무수이 구타하고 해오대 우리 동구로 드러움을 보고
반드시 산을 두도 망하도다 산길을 넘으며 방방곡곡이 뒤지더니 수풀밋히 한 짝 슈해버
서 저 노릇거늘 우격이 대화왈 그 미인이 필연이 길로 갔도다 슈해를 잡어들고 일제이 조
차산을 넘어 평디에 이르러 의외일 위장군을 맛나 창긋히 얼굴을 췌니 이고 성명을 도망
하야 도라와 춘성을 보고 랑패함을 말하니 춘성이 또 한 계괴일 우지 못함을 한탄하며 춘
월을 보고 일일이 고한대 춘월이 머리를 숙이고 이윽히 생각하더니 우어왈 승평세계에
갑스를 다리고 밤에 드니는 장쉬 엿지적장이 아니리오 이는 반드시 록림제장이 밤을 두
드니 다가 선랑을 취하야 감이니 우읍다 선랑의 빙설지조로 압채부인이 되얏스니 비록

그스심은 모르거니와 황쇼저를 위하야 화근을 꾀하엿시 함이로다 춘성왈 그는 그러하
나 우리 공은 업슬지니 엿지 절동치아나리오 춘월이 쇼왈 거거는 근심치 말라 내 계괴잇
서 우격과 거거의 공로를 나타낼지니 거거는 루설치 말라 즉치 우격의 엿은 바슈해를 가
지고 화부에 이르러 부인과 쇼저를 보고 회회이 우으며 슈해를 내야 늦코 왈 쇼저는 이 신
을 알으시느니 잇가 황쇼제 조세보더니 집어더지며 춘월을 취왈 천기의 신을 무엇하랴
가져오노 춘월이 곳쳐집어들고 쇼왈 불상하다 선랑이 여이신을 신고 천리강주로 다정
랑을 쓰라 황성에 이르니 거름거름 금련해라 조물이 식고하야 온춘을 못누리고 구원야
디에 발벗은 귀신이 될줄을 엿지 알앗스리오 황쇼제 당황왈 춘비는 그무슴말이 노춘월
이이에 손바닥을 뒤집으며 쇼저와 부인 압히다 그어안져 왈 천비 춘성을 출동하야 우격
을 산화암에 보내야 선랑을 겁탈하랴 하더니 선랑은 절개잇는 녀지라 순종치아 남애
우격이 도로 허겁내야 칼로 췌니 시신을 업시 한 후 일척 슈해를 취하야와 천비를 뵈이며
증거하니 종금이 후로 선랑을 세간에 업시하야 우리 쇼저의 평성 화근을 덜면이에 천비
와 춘성과 우격의 공이라 부인과 쇼저는 무엇으로 갑고저하시느니 잇가 위씨이 말을 듯
고 대열하야 심여 필치 단과 일빅 랑은 조를 주어 춘성과 우격의 슈고함을 표하랴 하대 춘
월이 링쇼왈 부인은 엿지 사쇼한 지물을 앗기샤 다된일을 그릇치라하시느니 잇가 춘성
이 처음 우격을 보낼때에 천금으로 약속하고 우격의 당이 또 한 수 십여명이 라 무비방탕
무겁흔재니 만일 지물을 후이하야 입을 봉하지아니 신즉대소를 루설하야 뒤쫓치 엿지

되줄 모르리이다 위씨즉시 천금을내여 주고 선랑은 죽은 줄도 믿더라 차설 양원슈마달
을 보내야던 조씨상표호 후황명을기드려더니 홀연 현시문져나르려 조서를드리거늘
원슈북향슈명고 장에올나 부원슈군례를 밧을시 홍랑이 홍포금갑으로대우전을차
고 절월을잡아 군례로도독씩외오니도독이 기용답례왈성은이 망극하사 원슈를빅의
로릭용하시니 원슈엇지씨보답고저하느뇨 홍원슈티왈도독이우에게시니쇼장이무
슴방략이잇스리오다만복을치며괴를들어견마지력을다할가하느이다도독이미쇼
하더라 홍원슈물너막초에도라와 부원슈괴호와 절월을세우고 또호제장의군례를밧
은후다시도독장중에니르려형군홀계교를의론하더니마달이또나르려황명을보호
후일봉쇼찰을드리거늘떠혀보니스연에왈

賤妾碧城仙 風流放蕩

禮節法度

君子門中

家道

濁亂

천첩벽성선

은풍류방탕

자최로

례절법도

를비홍이업서

군조문중의

가도를

탁란

고산사야덤

에종적

이표박

하야적한

의검두고

흔됨을

면치못할

가하얏더니

마장

군의구활

을힘님어

도관

에탁신

하오니

는다

상공의

주신바

라다

야스스로

진되스

성의

그득중

호리를

세가지

못하오니

군조는

거울

처주심을

비라느

이다

대군이

교지로

가심애

음신이

더욱

창망홀

곳치

싸힌

정원을

지필로

다못하느

이다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情願 紙筆

하나라나락축음이도독씩하직왕도독이남방에은위병행하사한나라마복파제갈무
 후에양두치아니실지라남방벽성이장춧싱스당을경영하야천추만세에혜택을유전
 할가하느이다도독이쇼왕이느다황상의교해라창곡이무슴혜택이잇스리오호대만
 왕축음이다시홍원슈씩하직왕과인이만릭지방에성장하야안목이고루하더니원슈
 를외음애그황홀하고스모하느정성이다만성활지은을감사할뿐아니라종초고별에
 관산이묘연하나라일만일월상씨의빅치를बाट러련조썩회하드러잔죽반가이
 뵈을가하느이다홍원슈쇼왕싸흔죽덕국이오사관죽교인이라평슈남북에봉별이무
 덩하나라구소망은종금이후로대왕은천만조이하사다시홍흔탈조흔자로이싸에니
 르게마르쇼저나락축음이대쇼하드라일지련이홍원슈씩고왕첩이이길로집편하야
 원슈의뒤를조치고저하오나종적이어늘하야쑥조지못하오나타일다시외읍기를
 라는이다홍원슈심중에싱각하되내일지련의용모지조를앗겨거두고저하더니제이
 제조철모음이업스니이느만종이라풍기강한하야인정이적음이로다하며오히려집
 슈초창하야량구무언하드라도독이형군함을지축하야만장렬목합은만병삼천과를
 거느려길을열어선봉이되고되련풍은오천과를거느려전장군이되고소스마느오천
 과를거느려후장군이되고동초마달은좌우장군이되고도독과홍원슈는대군을거느
 려중군이되야교지를향하야형군할식처시는삼월모춘이라남방이조고로절제일너
 던과극열하야중국오륙월조흔중산천이동타하고초목이희소흔되헌편으로바다이

넓어괴이흔바람과습흔괴운이스시에조속하교들이넓어혹스오빅리에인개업더라
 교지왕이도병을거느려경상에영후하거늘도독이적정을무른대교지왕왕흥도왕탈
 히느만인의종락이라련성이홍녕하야제아비를찬탈하고그안히쇼보살은요술이난
 축흔중성품이교악하야지금오계동에잇스니원리남방제국에홍도국이풍기무도하
 야련류이업고위력을쥬장하니그강악하고곳셈이금슈와다름이업느이다도독이우
 문왕오계동이여괴서멋리노교지왕이되왕스빅여리나그스이다섯시내잇스니일왕
 황게오이왕털게오삼왕도화게오스왕아게오오왕탕게라황게들건년죽사름의몸이
 누르러창질이날고털게에빠진죽금털이죽아몰이되고도화게는삼월에도해원죽물
 결이북어독기가십리에들니고아게느모르고마신죽병어리되야언어를불통하교당
 게느홍상물결이슬허사름이드러서지못하니연고로비록강병밍장이라도이곳에이
 르러는속슈무척이니이다도독이말을듯고심중에근심하나라괴식을로출치아니하
 고교지도병오천과를거느려오계동을향하야형군할식곳에너르니산천이광활하
 고디형이평평하야가히대군을류할만하교임의일모흔지라산을의지하야진을치고
 밤을지낼식황흔월식이명량하거늘도독이원슈로더브러편복으로진문밖게나와빅
 회하며월식을보더니홀연풍편에풍경소리들니거늘도병드러무르니도병왕이후산
 아래북과장군신피잇느이다홍원슈도독씩고왕마복파는한나라명장이라정령이민
 멸치아니하얏슬지니잠간화화를베풀고음이도홀가하느이다도독이응락하교조치

묘중에 니르러 일쭙함을 살오고 그 만히 심축한 후 탑상거북을 집어 패를 보니 길흔 지라
묘문을 날식 밤이 임의 갑혔는 지라 스면에 검은 안기 자욱하야 일광을 그 리왔거늘 도독
이원슈를 보아 왈 이는 남방 장과라 사람들이 축상한 죽병이 되느고로 마복패의 이를 먹어
장과를 제어 하얏더니 이제 장군이 병여 약질로 독과를 쏘임이 었지 념려 되지 아니 리오
홍원슈 쇼이 되 왈 쇼장은 만인이라 관게 처 아니 하느이다 하느고 도라와 쉬더니 시야 장반
에 원슈 홍연도 혈혼 절하느도 독이 대경하야 친히 원슈 막초에 니르러 반향을 구원 함에
바야흐로 회성하느지라도 독이 좌우를 물니고 종용문왈 랑이 풍진에로 려고 아사부
졸업시독 혼안기를 쏘야 그러하느다 홍랑이 신음을 하며 왈 이는 첩의 종신지 절이라 천리
전당의 슈중 갑혼이 물결을 마시고련애 절역의 표박 종정이 풍도에 슈상한 증인 가하느
이다 동성이 굿치지 아니 하느거늘 도독이 우민하야 밤비약을 권하며 안저 보다가 도라을
서손을 몬즈며 닐너 왈 교지느느고로 괴흔 곳이라 내 비록 지죄 업스나 맛당히 랑을 더
신하야 오계동을 취할 거시니 랑은 후군이 되야 셔서 이형하며 안온이 도섭하느라 하느다
익일 홍원슈 거중에 누어 후군이 되느도 독이 대군을 지축하야 형군 할시 호곳에 니름에
로병이 고왈 이곳이 황계니 이다 하느거늘 도독이 멀니 바라보니 누른 물결이 도도하야 하
늘에 다앗스니 완연한 일터 황하쉬련 상으로느림 곳 더라 압홀 당하야 보니 길기느길에
지나지 못하느나 흐름이 급하느고 느리기 비여 잔이 나 되느지라도 독이 삼군을 호령하야 목
석을 슈운하야 드리를 무어 반을 거오 막아 물결에 차이여 도로 못지르니 수십 명 역스하

든 군서 밋쳐나 오지 못하야 물에 빠져지며 비록 권지나 임의 전신이 누르고 창절이니 러나
거늘 도독이 대경하야 다시 부교를 무어 세 번 씌어 지니 방략이 업고 날이 점점 저물며 군
중이 황황하야 모도 물을 림하야 물머리를 돌니고 섰더니 그 중물 혼필이 곳비를 씌코 물
로 다라 드려 흐르느 물을 마시거늘 군서 급히 잇쓰러 내니 또 혼창절이 닐며 눕고 느지 못
하느지라도 독이 보고 목연 랑구에 묘척이 업거늘 군스를 물녀 언덕에 진치고 밤을 장초
지낼시 도독이 소스마를 다리고 물가를 림하야 흐르느 물결을 망연이 바라보더니 밤이
들매 황괴 안기를 일위 사람을 엄습하느지라도 독이 소스마를 보아 왈 내고 금병서를 락
간보고련 문디리를 대강 비화스나 이는 문리로 추이하야 통치 못할배 오지혜로 경륜하
야 썩치 못할 일이라 하느이 국가를 돕지 아니 심이 오조물이 대공을 저희 함이로 다 소스
매 왈 홍원슈를 청하야 상의 함이 올을 가하느이다 도독이 쇼왈 홍원슈 병들 썩아 니라 인
력으로 못할바에 홍원슈 인들 었지 하느리오 하느다 시 장중으로 드러와 의식 막하느고
옴이 번외하야 장단하느고 몸을 니러 군중을 순행하느다 가원슈 막초에 니르니 홍랑이 혼곤
이 잠드러 동성이 후중에 굿치지 아니 하느거늘 도독이 념히 안저 몸을 몬즈나 셔듯 지 못하
며 옥안이 쇼슬하야 잔약 혼몸을 침상에 더젼스니 십분 가련하느고 칠분 념려하야 손야 차
를 신척하야 꺾히 떠나지 말고 동정을 보라하느고 장을 느리오 고 혼자 도라오며 심회 불락
하야 생각하느되 내대군을 거느려 심입 불모하야 대공을 일울가 하얏더니 었지 적은 시내
에 막히여 경륜이 업고 홍랑의 병이 또 혼심상치 아니 하느니 이는 반드시 조물이 식괴 함이

로다 조그장중에 너르러 책상들의 지하야 흥중이 울을 불락하더니 잠간 잠드렀다가 서
치니 새벽 바람이 장을 것으로 치며 링과 품속에 침노하야 일장한 죽하더니 신과 대단 불평
흥중 군중이 흥흥하야 목말나하느 소리가 면에 나타나니 도독이 손으로 셔안을 치며 크
게 소리 외대서 거의로 다하고 인하야 혼도하니 좌위 황하야 급히 원슈 씨고하니 이때
흥원 슈셔 흥정신이 현현하야 누엇더니 이 소식을 듣고 대경하야 밋쳐 응복을 고초지 못
하고 던지도지하야 도독 장중에 너르러 보니 도독이 상상에 누어 잠든 모양이라 막을 집
흠애 십분 흥대하야 중초의 화과 치성하거늘 원슈도독의 손을 잡고 불너 왈 흥호탈이 왔
스니 도독은 정신을 슈습하야 중후를 말습하야 쇼셔도독이 미미히 답왈 내 정신을 일음이
아니라 두통과 현과 심하야 견디기 어렵도다 원슈 소스마를 불너 수렴약을 지어 먹여 표
증을 화히하고 동정을 보아 강화지제를 쓸가하얏더니 뜻밖대 중세 점점 급하야 밋쳐 것
잡지 못할지라 원리도독이 청춘지년으로 예과 방장하야 산악을 흔들며 두우를 췌칠듯
위국하느 일편 단심이 동동축축하더니 이제이 곳에 너르러 황제의 막히 인배되야 경륜
이 업스니 심계 변되하야 화과 충상함이라 엇지 급하지 아니리오 비견대 불느 불느 하느
시각이 급흔지라 흥원 슈제 장을 불너 군중을 조속하야 고쳐 후를 맡니하야 소동치 말라하
고 원슈 막츠를 도독 장전에 올긴 후다시 장중에 드러가 보니 도독이 눈섭을 찡고 손으
로 가슴을 치며 육언미언하느 괴석이 잇거늘 흥원 슈넙히나아가 문왈 두통 현하야 아사
와 엇더하시니 잇가도독이 손을 들어 입을 크게 치며 필연을 찾는듯하느 원슈 즉시 불을

드린대 도독이 벼기에 의지하야 수항글로 유언하느니 그 유언에 왈

내 불충 불효하야 절역에 병이 드느 성주의 회곡하신은 충과 양친의 의려하느 회포를

장초 엇지하리오 내 병이 심상하느 소쉬아나라 조물이 대공을 저회함이니 지금 허박고

정신이 현황하야 무궁소회를 다 못할지라 유유만사를 랑에게 부탁하느니 랑은 절세

한영지오 초인한지라 이라 종적이라 유유만사에 자랏스나 벼슬이 임의 조정에 나라나

니 내 몸을 더신하야 삼군을 동독하고 개가라고 고국에 도라가 군천을 위로하야 창곡으

로 하야 공불충 불효하느 죄를 일분덜게 함이 평생지기의 저버리지아 남이라 부유인성

이 저리로 이긋하느니 랑은 과도이 슬허말고 후련타일에 초성에 미진한 인연을 다시 벗

게하라

도독이 쓰기를 못치고 붓을 더지며 다시 흥랑의 손을 잡아 랑구히 보더니 허허탄식하고
성각이 업스니 오히려 출스미첩선선스하느니 장스영웅루만금은 던지운수와 한실흥망
의 관계한 일이라 엇지 인력으로 할바리오 초시흥랑이 정신이 비월하고 던디아 득하야
어린다시 안저성각하되 내 불과 일기너조로 부모친척이 업고스싱영육이 도독 씨달녇
스니 구차투성하야 지우금일흠도 죽기를 겁낸이 아니라 양도독을 위함이니 오시석공진
에 공성략디하야 고초비상함도 공훈을 뜻함이 아니라 양도독을 위함이니 이제 만일도

독이 불행한 신죽국이 안위를 내어 이알며 삼군진퇴를 내어 이알니 오맛당히 나의 몸이
몬져 죽어 만사를 모르리라 하고 도독압히 나가 마히 불너 왈 상공은 정신을 차리샤
흔마디 말씀을 못 드르시니 잇가 도독이 대답지 아니하니 홍랑이 불승역석하야 생각
하되 내일 죽의 약복서를 비화오늘 한번 쓰지 못함은 엇지 원통치 아니리오 패를 엇으
니 패레는 동하야 길흉이 쇼연치 아니하고 므를 집혀 약을 생각하니 정신이 황홀하야 집
중홀길 이업는 지라 장탄왈 내 평생에 대사를 당하나 심신이 창황치 아니더니 이도 반드
시하늘이 너를 빼스샤 길치아 난징죄로 다하고 좌우를 잠간 물닌 후 다시 도독의 손을 잡
고 왈 첩이 상공을 맞는 지스년에 이년을 리별하야 스심을 모르다가 천리타향에 쓴어진
인연을 뜻밖게 다시 이어 여생을 의탁할가 하얏더니 이제 참아 버리고 가시며 흔마디 말
슴도 업는 잇가 도독이 눈을 떠 잠간 보고 눈섭을 찡그리며 물을 먹여 듯기 슬허하듯하
거늘 홍랑이 그 생각 이잇슴을 오히려 다형하야 약을 들어 권하며 룡세를 못고져하더니
도독이 홀연 호소리를 지르고 엄홀하니 오호석지라 개세군조 오흥류호걸이 청춘지년
에 이긋치됨은 하늘이 알음이 이다하리 오홍랑이 약괴를 더지며 급히 몸을 먼저 보니 빅
무일형이라 홍랑이 탄식하고 니러나며 왈 내 참아 못보리로 다하고 개연이 장외에 나가
니 소스매 장외에 섰다가 동정을 못고져하더니 원슈도라 보지 아니하고 원문밖으로 나
감애 손야 채창을 들고 뒤를 좃고져하니 원슈왈로장은 쓰르지 말라하거늘 야채당황이
물너 나니 츠시새벽들이 거의 지고 별빛이 하늘에 마득하니 군중루쉬임의 오경이러라

홍랑이 바로 황계물가에 다다라 앙련탄왈 유유창련아 첩을 살니시라 하실진대 도독의
병세 엇지 이디경에 니르시니 잇가 첩이 어려서 청루에 성창함애 저승덕박하고 자라쥬
문에 의탁함애 복과 지성하야 만리절역에 다시 절명케하시니 이는 첩의 박명호연피라
도독양공은 효어스친하고 충어스군하야 빅형이 무흠하거니 신명씩희죄함이 업슬
지라 하물며 나히이 팔에 잇고 전정만 리긋하니 원컨대 첩의 몸으로써 도독을 더신하
야 황계에 더져 슈신의 한악호성품을 못치게 하쇼셔 언필에 몸을 소사들에 빠지고져하
더니 홀연 등뒤에 막대소리나며 급히 불너 왈 홍랑은 별리무양하나 원슈 놀나도라 보니
이에 벌운도시라 일변 반기고 황망이 압히나아가 저비할루왈스워어디로 오시며 엇지
이곳에 니르시니 잇가 도독이 쇼왈로워마 참관음보살과 남련문을 낫더니 그디의금
일익운을 알고 구코져와노라 원슈 깃불을 이기지 못하야 왈스워셔련으로 가신 후 다시
비알함을 뜻하지 못하얏습더니 이긋치외음은 하늘이 지시하심이로 소이다도시와도
라갈길 이총망하니 도독의 병세를 잠간 보고져하노라 원슈대회하야 도스를 장중에 인
도하니 츠시도독이 임의 혼절하야 사를 모르는지라도 시숙시량구에 랑중으로 삼키
금단을 내여 원슈를 주어 왈 이것을 먹인즉 패차하리라 언필에 니러나가 거늘 원슈진문
밖과 나와 다시 고왈도독의 병이 장부의 소쉬아니라 근원이 오계동에 잇스니 스부논방
략을 보히 마르치쇼셔도 시웃고 세귀글을 외여 왈

一杯土克水 현덩이 흙이 물을 이기고

萬柄火鎖鐵 만자로불이쇠를녹이느니라
泛彼桃花浪 더도화물결에떠서
必含桃花葉 반드시도화납사귀를입에물라
痛飲啞溪水 아계물을만히먹고
夜半渡湯溪 밤반에탕를건너라

도식읍기를못치고원슈를보며왈홍랑의미간익운이금일처지다하얏스니전정부귀
극진홀지라하고슈쥬에들엇든빅팔보리쥬를주어왈석가세존이묘법을강론하실제
륜회념불하시느구슬이라낫나잇이정심공부를듯츠와스괴범치못하느니즈연쓸곳이
잇슬가하노라언필에일진청풍이되여잔곳이업거늘원슈공중을향하야빅비샤례하
고쟝중에드러와급히금단을갈아도독의입에너흐니일기에홍중이상연하고이기에
정신이청명하고삼기에신기여상하니원리금단은석가의샹플령약이라도독이약을
먹은후병세쾌차홀썸아니라총명정력이평일에서비승하더라이때홍원슈도독의병
이래차함을보고깃름을이기지못하야빅운도스왓숨을고하니도독이또흔놀나고창
연함을마지아니커늘원슈인하야세귀글을외오며급히형군홀식군중에하령왈대군
이일시에황토흔중식가지고황계를건너되만일구같이잇거든홍을몬저입에물고물
을마시라하대빅만대군이다도와흙을웃압히쉬리고건너며일변입에물고황계를마
시니무양흔지라삼군이용약하야즐기는소리우뢰갓더라익일월계에니르러봄애물

빛이검고푸른중한괴어려병장괴를담아봄애과연독아물과합하더라홍원슈하령
왈삼군이다각각흔자로해불을켜들고건너라하대대군이일시에풀을버혀해를몬드
러불을다리며들고건널식빅만병해불이떨계를덥헛스니그중화광이드물게선곳은
건너는군스와말이한괴를이기지못하야다시해불을더흔후바야흐로무양이건너고
다시형군하야도화계에너르니츠시는삼월모춘이라남방괴휘일너언덕에도해만발
하야물결이창일하야락해슈상에ㄹ득히써오니물빛이붉어독괴코를거스리는지라
군스중점고실업는재손가락으로물을찍어맛보니경각간에손이부룻고입으로도혈
하거늘홍원슈하령왈대군이각각언덕에올나도화를싸인대데리에문지르고햇흔송
이식입에물고건너라빅만대군이다도아햇을씩그니경각간에언덕우의도해회소하
더라이에북을치며도화계를건널식덥덥화영이조요하니홍원슈도독과말머리를
련하야형하며랑연쇼왈강남전당호삽리하해아름답다하나이에지나지못하리로다
하거늘도독이미쇼하고도화계를건너아계를당하니홍원슈하령왈제쟝삼군이만일
목口은재잇거든각각물을슬도록마시고건너라하니군중이오히려저저하거늘손야
채내다라왈우리원슈는신인이라엇지의심하느뇨하고표조를들어물을써흔번마시
며되던풍을보고그쾌함을말하고저하더니홀연혀긋어말을못하느니라표조를더저
고눈물을흘리며가슴을치고혀를ㄹ러쳐방성대곡하니홍원슈대쇼하고다시량것마
시라하대손야채저저하다가련하야두어표조를먹음에도로혀홍중이청쾌하고성음

이분명하거늘야채대회하야원슈씩고왈로신이항슈서원슈를업고슈중으로형홀저
에절강조슈를비불니마섯스나엇지이곳치청쾌하리오하거늘원슈아미를썩고며쥬
파를홀녀보아왈내부즐업시물을더먹여형설슈설하느도다손야채알아듯고무연이
물너가니대군이일시에아계슈를흥흥대정신과기운이도로혀다하더라익일탕계
에너르니급흔물결이일광을썩라살으니불긋흔기운이갓가이서지못홀지라홍원슈
슈변에진치고밤을기드릴시천히물을림하야봄애군중루쉬하말조초에너르러물결
이그요하고한기슈상에돌거늘원슈급히삼군을호령하야일제이탕계를건너니츠시
빅만대군이오계힘디를무스이건너지라제장군졸이서로치하하며홍원슈의진동하
심을탄복하더라원리황계는도정이라이토극도하고렐계는금정이라이화극금하고
도화계는독기라이독제독하고아계는풍되달나처음먹은죽병이나고롱음흔죽장위
니음이오탕계는남방화기라조야지반에련일싱슈하야상극함이니대범련하만물이
화기를파히밧은죽독기싱기느니남방의산천초목이무비화기라그러흔고로독기이
곳에모힌연괴러라차설홍도왕달히그안히보살과더브러련병이니름을듯고대경하
야죽시쇼대왕발히를청하니말하느라할히의아오라만부부당지용이잇고성품이불긋
치급하더라랄히말히를디하야왈명병이이제오계동을건너니엇지쌍방비하리오발
히팔을썩내여왈요마잔병을흔복에못지리지니엇지방비함을근심하리오랄히왈현
데는수이말하지말라내정병삼천기를주리니자고성을직히여드러움을막으라말히

응락하고가니라자고성은오계동드러가느북편에잇는성이니놓흔외우에잇서그곳
에자괴만흔고로자고성이라하니라츠시도독이오계동을향하야형군홀시흔곳을비
라보니산에슈목이참던하고일편고성이은은이비이거늘홍원슈대경하야교지도병
을불너무르니도병왈쇼디등이오계에발자최니르지아니하야조세모르오나다만드
름애오계동드러가는길이자고성을지나간다하더이다홍원슈덤두하고도독씩고왈
랄히만일복병을두어대군의뒤를엄습흔죽랑패홀지니몬져자고성을취함이묘홀가
하느이다도독왈엇지써취코저하느노원슈왈대군이이곳에진치고밤을튼동마량장
으로오천기를거느려자고성북편에미복하고미명에대군을모라오계동을향흔죽자
고성북병이반드시내다라길을막을지니츠시를튼동마량장으로자고성을취케함이
묘홀가하느이다도독이허락하고대군을류하야경야홀시서야삼경에동초마달로오
천기를거느려보내고련명에고각을올니며대군을모라오계동을비라보고풍우긋치
형군하니쇼대왕발히과연성문을열고정병을거느려피에느려대척왈쥐긋흔히겁
업시호구를지느니네담이얼마나크뇨하고물을노아다라들거늘원슈급히진세를변
하야후군으로선봉을삼고선봉으로후군을삼아일제이몰머리를돌니며기를돌너발
히를디덕홀시원슈도독과진전에서비라보니랄히의신장이십척이오얼골이검고범
의눈이오곰의허리라홍녕흔모양이인형긋지아니하고두손에각각렬퇴를들고련디
를흔들듯소리치고다라드니도독이원슈를보며왈이엇지인류리오만일귀신이아닌

죽증승의 무리로 다하고 퇴련풍으로 나가 더덕하라 하니 려풍이 벽력부를 들고 발히를
치라 할대 발히우슈의 려퇴를 넘히치고 좌슈로 벽력부를 바다 달쳐코저 하니 려풍이 대
로 하야 도채자로를 쥐고 늦치아니 할대 발히출연하마디 소리를 지르며 한번씩 르치니
련풍이 몸을 번득여 락마 할대 발히대 쇼왈 장지로 다네 능히 날과 수합을 싸호는도 다로
야의 용력을 알고저하거든이 려퇴를 들너보라 하고 녀히 샐든 려퇴를 마전에 더지니 절
반이나 싸에 박히거늘 려풍이 더욱 분노하야 진력하야 들고저하니 무개천만근이라 겨
오흔번들어 싸에 더지며 몸을 소사물게올나 본진으로 도와와 탄왈 이는 범인이 아니라
만일 넷날 축산을 문흐치던 오명역시아닌 죽구덩을 드든 초패왕의 후신인가 하노라 언
미 필에 발히크게 웨여왈 내빅만 명병을 말하지말고 비록 명련지일국을 기우려 천하와
도로 애 겁내지아니하노라 하거늘 도독이 대로 왈 오랑개 샷기 무례함이 이긋호니 그머
리를 취치못흔 죽내회군치아니라 하원슈쇼이디 왈 쇼장이 비록 무용하나 흔번싸화
보리이다 도독이 침음부답하니 원슈다시 쇼왈 쇼장의 쌍검은 평성스랑하느칼이라 요
마만장의 더러운 피를 씻지써 못치리잇고 허리에 찬살이 오키오니 제대에 만장을 취치
못흔 죽군령을 두리이다 하고 쌍검을 끝내 손아차를 주고 환도와 궁시를 차고 물게오르
니아릿다 온거동과 한가한 풍치만장에 게비유컨대 너모상덕지아니하니 제장삼군이
전전에나 서승부를 구경할셔도 독이 또 할진상에 놓히안져 만일 홍원슈위티함이잇슨
죽대군을 모라 구원코저하더라 대개승위엇더 할고 하회를 보라

데이십이화

양도독이 술을 가져 차고를 듯고

홍원슈괴운을 보라 호구를 보내다

楊都督携酒聽鷓鴣

紅元帥望氣送狐裘

각설쇼대왕 발히 퇴퇴를 두루며 명진을 향하야 무수 줄육하며 싸움을 도도니 홀연 명진
으로 일키쇼년 장슈머라에 성관을 쓰고 몸을 금포를 남고 대완마를 타고 대우전을 차고
보도궁을 띄고 표연히나오니 옥궐 혼용모와 별궐 혼눈에 정신이 돌을하 고 풍치 표일하
야시 석풍진에 못보든 인물이라 또 혼슈중에 병괴업고 섬섬옥슈로 말긋비를 거스려 잡
아완완이나오니 발히보라보고 대쇼왈로 추흔 재드러가고 묘쇼흔녀지나오니로애 혼
번쇼견하리라고 퇴퇴를 공중에 더저지조를 즈랑하며 홍랑을 열너왈 네얼굴을보니
귀물이 안닌 죽경국가인이라로애 맛당히 싱금하야 가리라고 퇴퇴를 넘히세고 물을
노아드러오거늘 홍랑이 미쇼하 고 물을 들니며 보도궁을 다리혀 옥슈번득이는곳에 발
히의 왼눈을 맞쳐눈알이 소스니 발히하마디 소리를 벽력궐치치르고 혼손으로 살을 싸
히며 혼손으로 려퇴를 들고로기 추련하야 불궐 혼성식이 일비더하야 갑옷을 버셔싸에
더지고 검은살을 드러내며 왈네 요괴로운 지조를 밋고 이긋치당돌하니 시험하야 다시
쏘라로애 맛당히 가슴으로 쏘바트으리라 하고니를 갈며 다라드니 홍랑이 또 미쇼하 고 물
을 돌려 헛활을 다리여시위소리나니 발히모상에 니러서 비를 내밀며 왈로애 맛당히 비

로써네살을밧을지니요피는머리로써내털되를밧으라하고우수에털되를들고홍랑
을향하야더진대홍랑이급히피하며옥슈를번득여시위소리나는곳에별곳치셴른살
이드러가발히의말하느니입을맛침에발히오혀려살을싸히며피를썸어넘은눈의등잔
곳흔화광이구을며분귀를이피지못하야물게뛰여느려범곳치다라드니홍랑이설화
미를채쳐황망이피하며대척왈네눈이잇스나하늘돌흔을모르기로내몬져썸이오입
이잇스나말을삼가지아니하기로내두번썸이어늘이곳치무레하니모음이막히어홍
두역장을포장함이라내셋재대잇스나다시내심통을쏘아막힌궁글통케하리라언필
에옥슈번득이며다시시위소리나거늘발히의홍악함으로도가슴을무리위피하더니
뵈활에속음을세듯고더욱분로하야길길이뛰며다시다라드니홍랑이형세급흔지라
대척하고성모를굴니며느는살이바로발히의가슴을쏘아등지지스못나가니할히바
야흐로반길이나소사흔소리를지르고싸에엮더니홍랑이환도를싸쳐발히두상에
셋든홍도즈를벗겨세여들고본진에도와도독씩드리니도독이대회하야제장삼군
을면면이상고하며원슈의궁법과담대함을놀나더니동마량장이자고성북편에미복
하얏다가발히의산에느림을보고일시함익고자고성을취하니도독이원슈와대군
을모라패병을식살하고성에드러성지를순행하니진짓털웅산성이라다시부고를봄
애군량이불쇼하고집에마득흔군괴모다슈전하느병귀와비모으느지목이라도독이
대경왈우리군세일즉슈전을마르치지못하얏스니만일탈히세궁하야슈전으로다라

든죽엇지하리오홍원슈쇼이디왈쇼장이실노륙전의능함이업스나일즉슈전하느법
을비화비록쥬공근제갈무휘김성이라도양두치아닐가하느이다도독이대회하더라
이날도독이대군을호케하고각각쳐쇼를명하야안돈흔후자고성동편에놓흔석티잇
서경개마장패활하거늘도독이원슈를보아왈우리오래풍진에로고하야비쥬의중용
함을겨를치못하얏더니만리절역에이곳흔경개쉽지아니할지라잠잔술을가져쇼창
코저하노라원슈미쇼하고제장을물닌후다만손야차를다리고편복으로뒤에오르니
석양산식은을을창창하야안하에버려잇고하늘가에도라가는구름은유유망망하야
가업시넛넛디자고의소리쳐쳐에랑자하야익수를돕느니라도독이손야차를명하
야술을가져오라하야각각취함에홍랑이홀연취미를숙이고초창하야하거늘도독이
웃고그손을잡고왈랑이엇지즐거아니하느뇨홍랑왈첩은드르니유즈는스고향이랴
고기도노든물을싱각하느니며자고는강남서듯던새라그소리다름이업스나전일은
엇지그리화창하며금일은엇지그리쳐량하니잇고첩이본디청루천중으로의외상공
을맛나금일영해극하오니거의여흔이업슬듯하느니여즈의모음이그쪽함을모르고
미양이러흔경개를맛느죽제경공의눈물과양숙즈의탄식이무단히싱기니이느다름
이아니라첩이평성풍류장에노라규문닉측에조속하느후력이부족하고풍월가무에
감개흔홍금이잇서탄광음지여류하고이오싱지슈유하야련련흔정근은춤아잇지못
함이라상공은더자고의소리를드러보쇼서삼월춘풍에북산에썩이피고남산에넙히